

www.nrf.re.kr

Research and Result,
Reveal

연구와 성과, 드러내다

—
2020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ONTENTS

※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01p	금융시장 위험전이 분석 부산대학교 강상훈 교수	14p	고대 이집트의 역사 - 태고부터 페르시아의 정복까지 1권, 2권 연세대학교 김태경 교수
02p	동아시아 저승문화 자료 집성 및 해제 D/B 구축 위덕대학교 권기현 교수	15p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취약계층 안전, 도시웰빙, 국제개발 융복합 연구 서울대학교 김태형 교수
03p	문화소통의 관점에서 본 아시아 선악형제담 비교연구 -〈놀부와 흥부〉·〈황금수박〉 유형을 대상으로- 용인대학교 권혁래 교수	16p	디지털 사회 속 그림자노동 현상에 대한 이해 대구대학교 박상철 교수
04p	도모스트로이, 러시아 풍속과 일상의 문화사, “오늘날에도 살펴볼 수 있는 중세 러시아의 생생한 문화와 일상을, 그 대체로운 풍광과 역사문화의 흔적을 300여 장의 삽화와 사진 해제로 알아보다” 성균관대학교 김상현 교수	17p	“터-무-니(터에 새겨진 무늬) 속의 더불어 삶, 인문도시 용산” 민·관·학이 참여하는 공조(共助) 용산학 숙명인문학연구소 박인찬 교수
05p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의 문학·문화사(도서출판역락, 2020.2.28.) 성균관대학교 김성수 교수	18p	원효전집의 해석학적 번역 울산대학교(은퇴) 박태원 교수
06p	고대영어 파생접사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유강 교수	19p	The Mayor of Casterbridge 번역 연구 금강대학교 사공철 교수
07p	독일미학사 : 미와 지각의 역사 동덕여자대학교 김윤상 교수	20p	모빌리티인문학 총서와 모바일 인문콘텐츠 건국대학교 신인섭 교수
08p	공공성으로 본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의 미래 지향적 관점과 방향 고려대학교 김윤지 교수	21p	유라시아 지역학의 인문학적 체계 확대와 간학문적 접근 한양대학교 엄구호 교수
09p	대전환의 시대를 구축할 사상적 토대, 「뉴노멀의 철학」 경희대학교 김재인 교수	22p	사회정의와 인권의 패러다임으로 정신건강을 바라본 교양서적 발간 경남대학교 엄태완 교수
10p	선금술의 방법론 - 근대 작가의 ‘육필 원고’ 진위 여부 고증 경북대학교 김주현 교수	23p	인문한국(HK+) (저서) 한국형 지중해문명교류학의 출범과 『지중해문명교류사전』 부산외국어대학교 윤용수 교수
11p	인공지능시대에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과 가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중앙대학교 김중권 교수	24p	근세 및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자료 집대성 -출판 및 DB화- 한양대학교 이강민 교수
12p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적정기술을 활용한 운동서비스 개발 가천대학교 김지연 교수	25p	라이프니츠의 『신인간지성론 1, 2』 - 서양 근대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지식론 논쟁 송실대학교 이상명 교수
13p	Korean Pioneer Women : Picture Brides and the Formation of the Upwardly Mobile Korean Families in California, 1910s-1930s 대진대학교 김지원 교수	26p	design.thinking 기독교(design.thinking christianity, Stanford University의 d.school의 design thinking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기독교에 적용 고신대학교 정두영 교수

※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 | | | | |
|-----|--|-----|---|
| 27p | 고려시대 한시와 국어시가의 상관성
이화여자대학교 정소연 교수 | 29p | 『초기 그리스교와 영지주의』(Early Christianity and Gnosticism)
: 고대 영지사상을 통해서 본 그리스도교의 기원과
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케이씨대학교 조재형 교수 |
| 28p | 인문도시지원사업 해양 여수 인문도시를 꿈꾸다
전남대학교 조원일 교수 | 30p | 교정사역복지론
동서대학교 천정환 교수 |

인공
이공
15선

- | | | | |
|-----|---|-----|---|
| 31p | 차세대 친환경 이차전지 구현을 위한 고성능 유기물
전극소재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지연 선임연구원 | 39p | 간세포암의 종양줄기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한 세포독
성에 저항성을 보이는 기전 규명 및 이를 극복할 새
로운 항종양 면역 치료법 고안
가톨릭대학교 성필수 교수 |
| 32p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물인터넷
통신기술
영남대학교 김성원 교수 | 40p | 다수의 자율 무인비행체를 이용한 대기 방출 유해물질
감시 기법 연구
울산과학기술원 오현동 교수 |
| 33p | 환자유래 유도만능줄기세포 기반 얼굴골격근육 분화
프로토콜 개발
충북대학교 김은혜 교수 | 41p | 새로운 소내무재선충 및 뿌리혹선충 억제제 개발
영남대학교 이진태 교수 |
| 34p |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요인으로서 식물성 기반 식사의
질 평가 규명
경희대학교 김지혜 교수 | 42p | 태양광 활성 광촉매를 이용한 미량유기오염물질
오염수처리
광운대학교 장민 교수 |
| 35p | 인간의 건강·질병과 관련된 새로운 마이크로바이옴
대사체의 발굴
성균관대학교 김충섭 교수 | 43p | 암세포를 향한 혈관형성 모델 시스템의 수송해의
안정성
울산과학기술원 최규동 교수 |
| 36p | 세계 최고 수명 비발화 ESS용 수계 전지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김희탁 교수 | 44p | 줄기세포성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TFPC2L1 전
사인자 발굴 및 생물학적·임상적 유의성 규명
울산대학교 허진범 교수 |
| 37p | 한강 박테리오파지 유전체에서의 신규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발견 및 기능 증명
인하대학교 문기라 전임연구원 | 45p | 매질내 응력 변화 원인 및 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 |
| 38p | 마찰전기의 출력 극대화 원천기술 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진형 교수 | | |

한국학
5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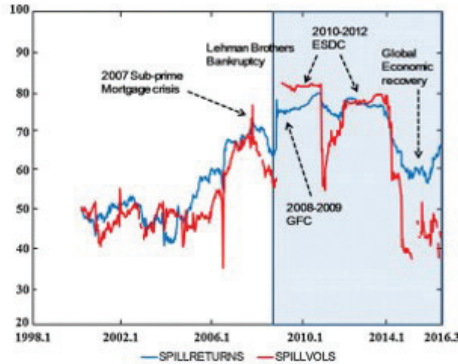
- | | | | |
|-----|--|-----|---|
| 46p | 동아시아 민주주의에서 바라본 이주민 통합
(Immigrant Incorporation in East Asian Democracies)
존스 홉킨스 대학교 Erin Aeran Chung 교수 | 49p | 근대 한국의 '세계지명' 정보 사전
(Information Dictionary of 'Foreign Place Names'in
Modern Korea, 1876~1945)
방송통신대 송찬섭 교수 |
| 47p | 일제침략기 한국 관련 사진그림엽서(繪葉書)의
수집·분석·해제 및 DB 구축
동아대학교 신동규 교수 | 50p | 조선의 외국인과 후손: 항화인과 황조인
King's College Adam Clarence Bohnet 교수 |
| 48p | Edward Y. J. Chung, The Great Synthesis of
Wang Yangming Neo-Confucianism in Korea
University of PEI Chung Edward 교수 | | |

금융시장 위험전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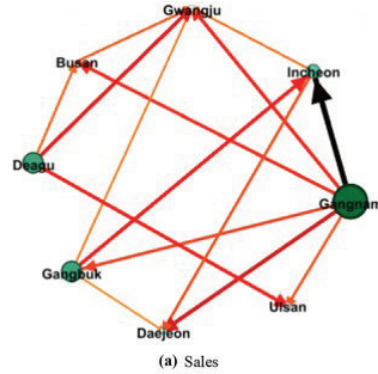
우수성과 대표자
강상훈



부산대학교
교수
sanghoonkang
@pusan.ac.kr



[금융시장 전이현상]



[부동산 시장 전이 네트워크]

주요내용

<금융시장 전이현상>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위험전이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위험전이현상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전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간의 위험전이 현상의 크기와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간 변동성 전이현상 (spillover effect) 을 강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에서의 위험 전달자(risk transmitter)과 위험 수령자(risk recipient)을 식별하였다.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 전달 경로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전달 경로를 분석하였다.

<부동산 시장 네트워크>

- 한국 부동산시장의 위험 전이현상 분석하였다.
-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불패 신화에 대한 부동산 시장 네트워크를 작성하여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동조화 및 위험전이현상을 분석하였다.
- 강남 부동산 가격이 한국 지역 부동산시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강남 지역 부동산 시장이 허브 부동산 시장으로 한국 부동산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분석하였다.
-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위험 전이 네트워크(network) 를 작성하였다.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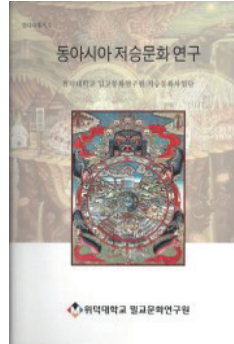
- 본 연구 성과로 국내 연구자들에게 금융시장의 전이위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융위기 또는 COVID-19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의해서 위험전이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위험의 전달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하였다.
- 국내 금융시장 전문가에게 부동산시장 위험전이에 대한 투자위험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위험전이를 고려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아시아 저승문화 자료 집성 및 해제 D/B 구축

우수성과 대표자
권기현



위덕대학교
교수
ghkwon
@uu.ac.kr



[저승문화 자료 D/B를 활용한 연구서와 학술대회]

주요내용

- 삶과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이다. 특히 죽음은 실존적 불안에 기초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적 제 현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 무의식'의 근원적인 요소들이다. 따라서 '죽음'과 관련한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이 투영된 저승의 개념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인의 사유와 사상, 문화, 종교, 사회성과 역사성을 규명하는 매우 기초적인 학문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 사고전서 등의 유교경전과 불교 대장경, 도교 일체경인 도장집요(道藏輯要), 한국문집공간에 대한 주제어 검색을 통하여 '저승' 관련 문헌 내용을 발굴하고, 이를 해제 집성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초로 전자문화지도 형태로 구현하여 이용 연구자의 검색 효과와 분석 효과를 최대한 증진 시킬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에 따르는 정보의 가공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초연구 토대 부재를 극복하고자, 문화철학적 범주에서 각 지역 및 종교의 상호 교섭과 융합의 형태를 불교-유교-도교-한국 무속이라는 종교별, 인도-중국-한국의 지역별, 또한 시대적 구분을 통한 전자문화지도 구축 방식을 통하여 지역과 지역, 종교와 종교, 시대와 시대의 상호 융합과 교섭, 그리고 계통적 발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자 문화지도(Road Map)와 타임라인(time - line)의 저승문화 학술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기대효과

- 동아시아학과 실크로드학의 접점을 찾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구축하여 한국 문화의 하이브리드적 성격을 문화 융합 연구로 승화
- 죽음에 대한 피동적 접근에서 벗어나 웰다잉(Well-dying)과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에 기여
- 저승문화는 오징어게임, 신과 함께, 도깨비 등 최근 한국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는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논문]

문화소통의 관점에서 본 아시아 선악형제담 비교연구

-〈놀부와 흥부〉·〈황금수박〉 유형을 대상으로-

우수성과 대표자
권혁래

용인대학교
교수
hrkwon3
@hanmail.net

선 관념		악 관념	
개념	내용	개념	내용
생명존중(5회)	다친 새를 치료해준 선한 마음	무정함(4회)	새를 함부로 대한 행동
근면한 생활(4회)	위라 부자, 흥부, 농부의 근면·소박한 생활, 착한 성품	욕심(4회)	장자의 욕심(재산독점욕), 이웃의 재물에 대한 욕심, 절제 없는 욕심
형제우애(3회)	흥부의 공손후덕 및 형제우애 및 형제화합 정신	동생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3회)	〈와자와 위라〉, 〈놀부와 흥부〉, 〈별나무 이야기〉
소박함·절제(2회)	〈황금수박〉, 〈별나무이야기〉	인색함(2회)	〈황금수박〉, 〈놀부와 흥부〉
공동체정신(3회)	가난한 사람 구제·자선행위(인), 음식 나눠먹음(일,우)	이기심(2회)	〈허리 부러진 참새〉, 〈빛나는 황금수박〉
가족에 대한 책임감	〈와자와 위라〉	가족에 대한 무책임함	〈와자와 위라〉
부부화락	〈놀부와 흥부〉	게으름	〈별나무 이야기〉
겸손함	〈와자와 위라〉	시기심	〈와자와 위라〉
공평한 재산증여	〈황금수박〉	땅을 사취한 상인	〈와자와 위라〉

[아시아 선악형제담에 나타난 주요 선악개념]

주요내용

- 이 연구는 ‘문화소통’의 관점에서 아시아 6개국의 선악형제담의 서사적 특징과 문화요소, 선악관념 및 문화상징을 비교·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아시아인들이 각 나라의 재미있고 대표적 옛이야기를 읽고 즐기면서, 편견 없이 서로의 문화를 느끼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아시아에 두루 전하는 선악형제담을 조사해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은 한국의 〈놀부와 흥부〉, 인도네시아의 〈황금수박〉, 말레이시아의 〈와자와 위라〉, 일본의 〈허리 부러진 참새〉, 베트남의 〈별나무 이야기〉, 우즈베키스탄의 〈빛나는 황금수박〉 등이다. 선악형제담은 형제간 재산갈등이 핵심 제재이며, 착한 동생이 다친 새를 치료해주고 보화를 얻어 부자가 되며, 욕심 많은 형은 동생을 따라하다가 실패한다는 서사구조를 보인다. 아시아 선악형제담에서 파악되는 선악관념은 ‘생명존중 대 무정함’, ‘근면·소박 대 욕심·인색함’, ‘형제우애 대 재산독점’ 등의 대립구조를 보인다.
- 작품에 그려진 자선가 드르마완, 욕심 많은 놀부, 인자한 할머니 등의 캐릭터, 허리 부러진 참새, 강남 제비, 흥부박, 황금수박 등의 문화상징은 이슬람문화권 및 유교문화권의 문화적 기호, 생태문화적 세계관 등을 보여준다. 선악형제담을 아시아 여러 권역에서 조사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을 적용한 비교연구는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아시아인의 문화소통 및 한국사회의 다문화이해에 활용·기여할 것이다.

기대효과

- 아시아 각국의 선악형제담에서 파악되는 문화요소와 문화상징은 아시아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문화코드로 활용될 것이며,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이해도에 기여할 것이다.
- 아시아 선악형제담의 서사와 캐릭터, 문화상징은 출판시장에서 유용할 것이며, 교육·캐릭터·게임·영상 등의 문화콘텐츠의 관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저역서]

우수성과 대표자
김상현

도모스트로이. 러시아 풍속과 일상의 문화사

“오늘날에도 살펴볼 수 있는 중세 러시아의 생생한 문화와 일상을,
그 다채로운 풍광과 역사문화의 흔적을 300여 장의 삽화와 사진
해제로 알아보다”



성균관대학교
교수

● russianstyle67
@hanmail.net



[저승문화 자료 D/B를 활용한 연구서와 학술대회]

주요내용

- 『도모스트로이. 러시아 풍속과 일상의 문화사』(2020, 민속원, 680쪽)는 16세기 중반 러시아 원문의 번역서이자, 본 분량보다 약 8배가 더 많은 해제와 삽화가 곁들여진 국문 번역 해설서이다. 이반 4세(혹은 이반 뇌제, 1530-1584) 치세기 러시아 귀족 계층을 위해 집필된 ‘가정 내 훈육 규제집’인 본 저술의 러시아어 원제목은 ‘집 세우기’란 뜻을 담고 있다. 귀족가정을 규율과 정교회 신앙의 원리를 통해 세워나감으로써, 당대 모스크바로 대표되는 한 국가형태의 근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헌은 러시아 중세 문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 내용상 총 63개의 주제로 분류되어 있는 이 훈육서에는 귀족 가정이 지켜야 할 여러 덕목과 행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각 항목에 기술되어 있는 규정들로부터 현대의 독자들은 당대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풍속을 접할 수 있게 된다. 문화백과사전이라고 명명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이 훈육서는 16세기 중반 유럽 전역에 나타난 국가 권력의 상실, 특히 종교문제 있어서 대혼란이 있던 시기의 한 중심에서 ‘러시아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등장한 주요한 문헌이자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 오늘날 러시아의 수도 크렘린 내부에 있는 성수태고지사원에서 사역하였던 정교회 사제가 아들에게 들려준 편지글 형식으로 쓰인 이 작품 속에는 지금까지 그 잔재가 남아 있는 수많은 문화요소와 삶의 양식, 이른바 풍습과 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기대효과

- 서유럽 중심주의의 역사와 역사기술의 편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중세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는 이 책에서 그 아름답고 의미 있는 가치가 발견된다.
- 러시아 복식, 그림, 사상, 종교, 민속, 물질문화 등 문화의 여러 요소들이 녹아 있는 이 책에는 국내 러시아 학계 전반에서 두루 읽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 영역에서도 고루 읽힐 교양도서로도 추천 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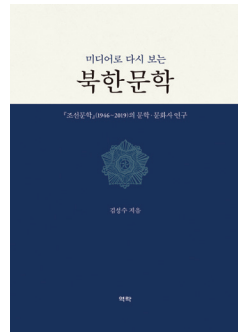
인문학진흥 [저역서]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의 문학·문화사(도서출판역락, 2020.2.28.)

 우수성과 대표자
김성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ksskdh
@hanmail.net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조선문학』의 문학·문화사(도서출판역락, 2020.2.28.)]

주요내용

- 저자는 성균관대 학부대학 글쓰기 교수, 북한학자, 문학평론가.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2001), 『카프 대표소설선』(1988), 『한국근대서간문학사연구』(2014), 『프랑켄슈타인의 글쓰기』(2009), 『북한 '문학신문' 기사 목록: 사실주의비평사 자료집』(1994), 『교실에서 세상 읽기』(1994), 『우리 소설 토론해 봅시다』(1997), 『여간내기의 영화 교실』(1996), 『영화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1998) 등의 저서가 있다. 본 저서는 북한문학을 대표하는 문예지 『조선문학』(1946~2019) 통권 866호, 8만 5천 페이지에 대한 총체적 연구 보고서이다. 『조선문학』은 북한의 작가조직인 조선작가동맹이 매달 펴내는 기관지다. 그 전신인 <문화전선>(1946)과 <문학예술>부터 계산하면 지금까지 통권 900호 가까이 나왔다.
- 본 연구는 잡지 창간호부터 2019년 12월호까지 통권 866호, 8만5천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을 전수 조사해서 표를 만들고, 그 “편집 미학과 매체 전략, 미디어 효과”를 분석하였다. 74년동안 역동적으로 펼쳐진 문예지를 ‘미디어 독법’으로 분석하여 당과 국가의 선전시스템에 적응한 북한문학의 미디어 특성을 새롭게 고찰하였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는 매클루언의 통찰에 기대어, 『조선문학』이라는 미디어의 형식과 내용을 통해 거기 실린 문학작품의 의미와 맥락을 파악해 보자는 것이다. 잡지 총호수, 발행소와 발행일자, 판형과 면수, 권두 기사와 특집 및 기획, 광고와 부록, 편집 후기, 비고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매체 분석표가 중요한 까닭이다.
- 미디어 독법을 통해 북한 문학 초기에 일종의 ‘미디어 내전’이 벌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조선문학』이 예사 문예잡지가 아니라 “당과 지도자의 정책 선전” 기능과 “문학예술의 특성” 기능이 각축을 벌이는 전장이었다. 이런 미디어 내전은 편집진의 교체와 잡지의 기획 이슈, 목차 배치 방식 같은 작품 외적 형식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결국 작품 창작과 독법에도 반영되었다. 『조선문학』과 그 전신인 『문학예술』지에서 확인되는 백석·이용악·임화·김남천·이태준 등의 활약상, 박남수·양명문·최태웅·이기형 등 월남 문인들의 재북 당시 작품, 그밖에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에 동조하지 않아 사라진 사회주의 리얼리스트인, 김창석, 서만일, 신동철 등의 자취를 복원할 수 있었다.

기대효과

- 이를 통해 현재 북한의 공식입장인 지도자와 당 선전 중심의 주체문학 외에 북한주민의 다양한 삶의 현장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북한 주민의 예전 생활상을 미디어에 실린 문학작품으로 복원하면,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만으로 이미지메이킹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하다. 이런 학문적 성과가 모여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정서적 통합과 코리아문화사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인문학진흥 [저역서]

고대영어 파생접사 연구

우수성과 대표자
김유강



한국의외국어대학교
교수
ykim
@hufs.ac.kr

한국문화사 Book Story

베오울프의 언어학적 이해
출판 연도 : 1998 | 20,000원

위키백과 연대기
출판 연도 : 2012

말의 역사
출판 연도 : 1995 | 20,000원

중세영어: 역사 문법 문헌
출판 연도 : 2005 | 20,000원

고대영어: 역사 문법 문헌
출판 연도 : 1999 | 20,000원

중세영어
출판 연도 : 1996 | 20,000원

고대영어
출판 연도 : 1999 | 20,000원



[〈고대영어 파생접사〉 표지 사진]

주요내용

- 매일 새로운 어휘가 생성된다. 본 저서가 다루는 고대영어(기원후 449-1100 사이에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로 오늘날 영어가 됨.) 역시 예외는 아니다.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파생법이 있다. 파생은 주로 접두사나 접미사를 기존 단어에 추가하여 새로운 품사나 새로운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만든다 (예: happy + -ness = happiness (형용사 > 명사); un- + happy = unhappy 'not happy').
- 본 저서는 고대영어 어휘파생에 대한 참고서이다. 즉, 파생 접두사와 접미사의 목록을 제공하고, 개별 접사들의 형태론적, 의미적 세부 기능에 대해 기술하면서, 관련 파생어들을 수집하고 분류하였다. 고대 영어 연구자뿐만 아니라 고대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언어학자라 할지라도 고대영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를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연구 배경이 되는 지식과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였다. 또한 고대영어 파생법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중세영어(1100-1500) 이후부터 현대영어(1800-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개별 파생 접사들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현대영어에 남아 있는 파생 접사들에 대한 통시적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현대영어 파생법 연구를 위한 통시적 기초 자료로도 활용 될 수 있도록 의도 하였다.
- 본 저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접사 파생법 개관 (기본 개념 및 주요 이슈 소개)
 - 고대영어 접두사 (목록, 기능, 분류, 개별 접두사 특징)
 - 고대영어 접미사 (목록, 기능, 분류, 개별 접두사 특징)
 - 고대영어 영파생 접미사
 - 다접사 첨가

기대효과

- 본 저서는 고대영어 어휘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참고서로서 고대영어 어휘에 관심이 있는 역사언어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형태론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하다. 특히 고대영어 파생과 관련된 이슈들을 소개하고 필요한 분석자료들을 제공하여 후속 연구를 파생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고대영어 코퍼스에 익숙하지 않은 역사언어학자들에게도 방대한 양의 자료와 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고대영어 어휘에 대한 정량적 이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독일미학사

: 미와 지각의 역사

우수성과 대표자
김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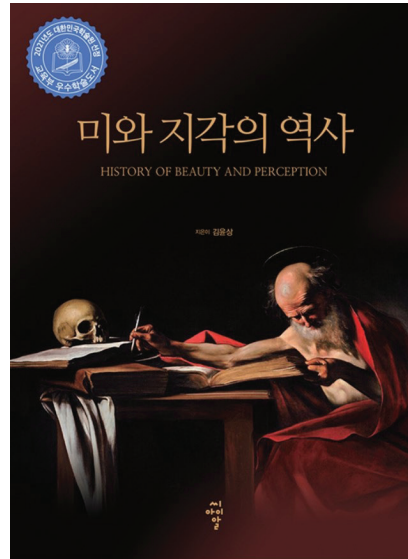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kimys

@dongduk.ac.kr



[미와 지각의 역사]

주요내용

-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는 개념적 인식과는 다른 인식 혹은 개념적 인식과 유비적인 인식인 ‘감각적 인식의 학문으로서 미학’을 정립한 18세기 독일 계몽주의 철학자 바움가르텐의 문제의식에 천착하여 바움가르텐 이전과 이후의 미학사 전체를 새로운 시각하에서 재조명하는 것이었다. ‘감각적 인식의 학문’이라는 바움가르텐의 미학규정을 반추해볼 때, 고대 그리스 이래로 미학적 논의들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연대기적으로 순차적 계열을 이루지는 않지만 거의 항상 중요한 줄기를 형성해왔던 미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간의 역학관계가 미의 이념에 대한 논의들이 중심을 이루는 미학논의에 감각지각의 작동체계를 다루는 소위 지각학적 논의를 보충할 필요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이다.
- 그리하여 이 책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에서부터 18세기 초 중엽 계몽주의 시대의 바움가르텐과 19세기 말 경험론적인 실험미학을 구축한 자연과학자들을 지나 21세기 지각학적 미학의 토대를 구축한 문화철학자 벨쉬와 뵈메에 이르기까지 미적인 것과 감각지각이 엮어내는 다양한 실타래들을 한올 한올 풀어내면서 감각적 인식의 학문으로서 미학이 갖는 함의를 새로이 드러내고자 하였다.

기대효과

- 본 저술결과는 미학 특히 문학, 예술, 철학의 담론들을 통합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독일미학에 관심 있는 일반대중들과 학생들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책으로 출판된 본 저술결과는 우선 본인의 미학사 강의 교재로 사용된다.
- 미와 지각의 역학관계 속에서 최근의 문화예술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학사 저서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저술결과는 실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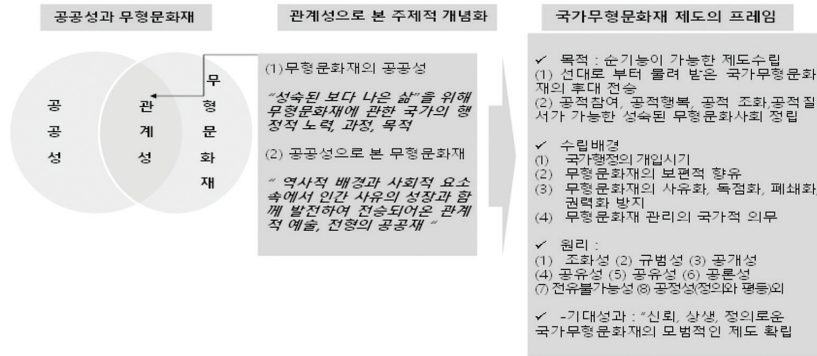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논문]

공공성으로 본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의 미래 지향적 관점과 방향

우수성과 대표자
김윤지



고려대학교
교수
● bluewave97
@korea.ac.kr



[공공성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의 프레임 제시]

주요내용

- 국가무형문화재를 둘러싼 혼선과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나아가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유사한 사안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감지 하였다.
- 먼저, 국가무형문화재의 현안들을 갈래지어 보면 전승 구도를 둘러싼 보존회의 '내부 갈등'의 심화, 국가보조금 사용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 2세대 보유자 인정을 둘러싼 세대교체의 차후 과제 등으로 나뉘볼 수 있고, 이와 같은 문제들의 원인으로는 국가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돈과 전승 구조에 대한 사유화 · 권력화 · 독점화 · 폐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 새로운 관점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재인식을 유도하고 제도안의 미래 지향적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본 연구는 공공성에 주목하였다. 공공성의 지적 계보를 추적하고, 지적 계보의 공통된 키워드와 특성들을 도출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와의 관계성과 미래성을 아래와 같이 메커니즘화했다.
 - 공공성과 무형문화재는 성숙한 사회와 성숙한 삶의 추구라는 동일한 목적과 가치를 지향한다.
 - 무형문화재의 공공성 개념은 '성숙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무형문화재에 관한 국가의 행정적 노력, 과정, 목적' 이라고 볼 수 있고, 공공성으로 본 무형문화재는 '역사적 흐름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인간 사유의 진화로 함께 발전하여 전승되어온 관계적 전형(典型)이며, 이는 후대에도 발전적으로 전승해 줘야 하는 공공재라는 주제적 개념화를 이끌어냈다.
 -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안은 공공선 · 공공참여 · 공적행복의 목적 아래, 공유성 · 전유불가능성 · 공개성 · 공론성 · 공정성 · 공익성 · 규범성 · 조화성 등의 원리로 수립될 때, 신뢰 · 상생 · 정의로운 무형문화사회의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시선과 노력으로 제도안을 실천할 때, 우리는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 문화재학 균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 국민의 사회적, 문화적 관심을 유도 할 수 있다.
- 새로운 인식으로 올바른 무형문화사회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 기관 및 관계자들의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 제도 개선 및 행정 처리의 실질적인 가이드로 적용 될 수 있다.
- 교육기관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인류무형문화재 등재의 명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저역서]

대전환의 시대를 구축할 사상적 토대, 「뉴노멀의 철학」

 우수성과 대표자
김재인


경희대학교

교수

armdown.net

@gmail.com



[뉴노멀의철학]

주요내용

- 코로나19 팬데믹 앞에서 서양 근대 가치 시스템의 근간은 맥없이 무너졌다.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본 연구는 전 인류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라는 ‘공동주의(commonism)’ 사상을 제안하고, 현실을 성찰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뉴리버럴아트(A New Liberal Arts)’ 인문학을 주장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행성적 거버넌스’를 주도하며 인류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뉴노멀과 공동주의
뉴노멀, 즉 이변과 이상이 새로운 정상(定常)으로 등극했다. ‘뉴’노멀이다. 이 개념은 감염병 대유행, 기후 위기, 인공지능의 오남용 등 ‘3중 위기’가 초래한 새로운 세상을 지칭한다. 코로나19는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에 이은 ‘대격변의 마침표’로, 설사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한다 해도 대격변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전해준 경고를 기회로 전환해 3중 위기를 극복할 동인과 힘을 모아야 한다. 인류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협력과 연대를 해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인류는 멸종이다. 나는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공동주의’를 주장한다. 공동주의란 인류가 공동으로 누려야 할 몫에 대한 권리 주장이다. 모두가 얽히고 엮인 현대 사회에서 협력과 연대는 허울 좋은 수사가 아니라 필수고 필연이다.
- 뉴리버럴아트를 향해
문사철(文史哲) 인문학을 해체하고 새 인문학을 구성해야 한다. 인문학은 현실에 밀착함으로써 구태를 벗어야 한다. 인문학의 핵심 중 하나는 ‘비판적 사고’다. 위기를 직시하며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성숙함과 용기와 자유로운 정신, “과감히 알려고 하라(sapere aude)”라는 표어에 비판의 핵심이 있다. 로마에서 자유시민이 갖춰야 할 소양으로 여겨졌던 <아르테스 리베랄레스(artes liberales)>, 즉 리버럴아트(Liberal Arts)야말로 전통 인문학을 확장할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이를 갱신해 ‘뉴리버럴아트’ 인문학을 제안한다. 이는 공적인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자유인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이론적·실용적 소양의 총합이다.
- 기술·경제·군사 등 하드파워뿐 아니라 문화·매력 등 소프트파워에서도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이제 선진국의 격(格)에 맞는 자세 전환이 요청된다. 격에 어울리지 않는 부문은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인류의 문제와 미래를 먼저 고민하고, 새로운 가치 시스템과 학문 시스템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모델을 제시할 책무를 지고 있다. ‘과학과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요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특징점을 이론적으로 추출하며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논문, 저역서]

선금술의 방법론

- 근대 작가의 '육필 원고' 진위 여부 고증

 우수성과 대표자
 김주현

 경북대학교
 교수
 ● kimjuh
 @knu.ac.kr

 [1] 단재의 서찰로 잘못 알려진 한시(독립기념관 소장)
 [2] 단재 서예 고증 논문 2편이 포함된 「선금술의 방법론 - 신채호의 문학을 넘어」

주요내용

- 「근대 작가의 '육필 원고' 진위 여부 고증」이라는 연구에서는 이상과 신채호의 육필 원고의 진위를 고증하였다. 우선 이상의 육필 「오감도」(영인문학관 소장)의 진위를 밝혔고, 다음으로 이상이 최정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육필 편지(종로문학관 소장)가 실제로 이현욱(지하련)이 최정희에게 보낸 편지임을 밝혔다.
- 「신채호의 서찰로 알려진 한시의 진위 고증」에서는 그동안 신채호의 서찰로 알려진 오언배울(독립기념관 소장)이 내용 및 형식적인 측면에서 단재의 작품이 아님을 밝혀냈다. 또한 「신채호 유묵으로 알려진 서예 작품의 진위 여부 고증」에서는 단재의 서예로 알려진 8폭 병풍과 10폭 족자, 그리고 5언 서예의 원저자를 밝혀내고, 이들의 전래 및 입수 경위를 추적했고, 그 작품들이 지닌 사상과 단재의 사상을 비교하여 서로 거리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서예 작품들의 단재 작품의 서체, 호와 낙관들을 엄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서예 작품이 신채호의 이름을 빈 가짜임을 밝혀냈다.
- 본 연구는 첫째 자료의 내용 및 형식(문학)뿐만 아니라 글자의 서체(서예학), 그리고 각종 판본의 비교(서지학)를 아우른 종합적 탈경계적 연구이다. 둘째,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비교한 실증적 연구이다. 셋째, 단재의 가짜 서예가 여러 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각종 서화에 대한 진위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기대효과

- 현재 신채호뿐만 아니라 민영환, 황현, 노백린, 조소앙, 신규식, 한용운 등 수많은 문인 지사의 출처 불명의 가짜 서화가 각종 전시회에 전시 및 유통되고 있다.
-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가짜 서예의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곧 근대 서화에 대한 공동 연구, 협업 연구, 융합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짜 서화를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근대 문인의 서화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온라인 자료박물관이 요청된다.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논문]

인공지능시대에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과 가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우수성과 대표자
김중권



중앙대학교
교수
jungkwon
@cau.ac.kr

주요내용

- 일찍이 Max Weber는 관료제 행정이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을 상정하였는데, 그의 사후 1세기가 지난 지금 관료제 행정 자체가 행정의 디지털화로 인해,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공공 사물인터넷을 통해 기계 자체에 의해 직접 운용되는 극적인 상황이다. 1999년에 Lessig가 코드가 법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전통적인 법적용이 더욱더 알고리즘이나 코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 행정의 디지털화는 직무수행모델과 조직구조를 태풍처럼 변화시켰다. 관료적 행정은 지식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는 Max Weber의 언급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알고리즘기반의 행위조종의 메커니즘은 법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야기한다. 아날로그적 조건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근대 행정법의 체계를 디지털화 시대에 맞춰 새롭게 형성하는 것, 즉 현대화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이다.
- 아날로그 시대에 구축된 행정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여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왜냐하면 관헌국가적 모델에 기반한 현행 법제도 대부분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심지어 치명적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디지털화의 기본인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의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디지털지배인 알고크라시(Algocracy)의 위협으로부터 디지털행정의 민주성을 견지하는 법적 접근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를 위한 토대작업의 일환으로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의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 그것의 직접적인 구현양상인 가상적 행정행위의 문제를 다루었다.

〈저자의 후속연구성과〉

- EU 인공지능명령안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2호, 2021.12.31.
- 인공지능(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 공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2021.2.28.
- 인공지능시대 알고크라시(Algocracy)에서의 민주적 정당화의 문제, 법조 제743호, 2020.10.28.
-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미래는 AI의 것일까?(공저) 2020.7.30.
- 행정에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의 공법적 문제점, 법조 제740호, 2020.4.28.

기대효과

- 3월에 공포된 행정기본법에 독일 행정절차법 제35조의a와 같이 '자동적 처분'의 이름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행위의 발급이 허용되었다(제20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상황의 확산과 일상화로 인해 가상적 행정행위인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행위는 조만간 뉴 노멀이 된다.
- 유럽집행이사회가 인공지능명령안을 공포하였기에, 행정기본법이 완전자동행정행위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둔 것은 변화에 부응한 것이다. 이 연구는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을 실효적인 법제도로 만드는 데 기본토대가 된다.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논문]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적정기술을 활용한 운동서비스 개발

4차산업시대가 열어줄 지속가능한 AASSA 커뮤니티케어서비스 개발 및 적용 : 지리적 공간의 관점에서

 우수성과 대표자
김지연

 가천대학교
교수

 ● eve14jjyoun
@gachon.ac.kr


[바람개비 시니어헬스케어체험관(AASSA zone)개소, 유인헬스를 이용한 운동시현]

주요내용

- 허약노인,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의 필요성: 노인인구 중 허약한 노인의 비율이 2017년 기준으로 전체의 16%에 이른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 비율과 비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100세 시대의 장수에 기쁨보다는 장수하는 동안 과연 얼마나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생을 편히 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크다.
- 운동의 지속성에 답이 있다: 운동은 질병 예방과 더불어 사회, 심리적 건강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와 같은 현대사회에서 운동의 지속과 관리에는 ICT기기의 적용이 중요하다. 대면과 비대면에서도 지속가능한 시니어 중심의 운동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일환으로 그 역할과 관리에 효과를 배가 시킬 것이라 기대한다.
- 시니어 스마트헬스케어 체험관 개소: 국내에서 개발된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 운동의 최신 기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체험관은 운동기능측정부터 운동솔루션까지 실행할 수 있는 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부터 효과성 검증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리빙랩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국내 유일하게 시니어 헬스케어체험관이다. 지속가능한 운동의 영역을 위하여 시니어의 건강관리 및 운동유지를 위한 연구 중심의 공간, 산학연의 조화와 융합적 연구의 성과와 도전에 충분한 가치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 시니어 스마트헬스케어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멘탈(정신건강)-옴니씨앤에스-마인드케어, 라이프스타일(활동량증진)-유인케어/에어팡, 신체활동(신체적 기능재활)-딤다 등 3가지의 영역의 4가지 스마트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한 목적별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AASSA 케어 매니저 양성(시니어 전문인력 양성) : 총 48시간의 이론과 실기 교육을 통한 2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기대효과

- 학문적 효과: 체육학 중심의 시니어 스마트헬스케어 체험관의 리빙랩운영을 통한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 사회적 효과: 미래 시니어 헬스케어 산업적 기반. 의료비 절감
- 교육 연계효과: 연구인력 전문지식 습득, 질 높은 연구결과 성취, 현장 근무자 교육
- 국가정책 활용: 복지관, 보건소, 경로당, 재가 등 커뮤니티에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의 다양성

Korean Pioneer Women

: Picture Brides and the Formation of the Upwardly Mobile Korean Families in California, 1910s-1930s

우수성과 대표자
김지원



대진대학교
교수
✉ jwkim161
@gmail.com

[Results from the Survey of Korean Picture Brides in California from Oral History Collections]

Name	Arriving year(age)	Hometown	M Motivation	Educational background	Economic activity	Source
In-myung Paik	1920 (20)	Seoul	Education	Teacher's school	Farm labor, laundry	YBIC #9
Sun-hee Shin	1915	Pyeongyang	Education	Pyeongyang high school	Farm labor, cooking, restaurant	SKAOC 56-62
Do-yeon Kim	1916 (23)	Pyeongyang	Education	Moose school in Wonsan	Farm labor, cooking, restaurant, vegetable stand, fruit stand	UCLASC No.14 YBIC #12
Myong-won Woo	1914 (18)	Seoul	Education	High school	Laundry, boarding house	SKAOC 63-76
Sung-sil Hahn	1917	Pyeongang-do	Education	Pyeongyang Soong-ui school	Farm labor, restaurant, sewing, laborer	SKAOC 167-171
Kang-ae Shin	1914 (19)	Masan	Education	Girl's school	Seamstress, hotel management	SKAOC 43-55

*Marks the following Source as abbreviated : UCLASC means Korean-American Oral History Project Collection (1903-1945) a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UCLA) ; SKAOC means Sonia Shin Sunoo's Korean Picture Brides : A Collection of Oral Histories ; YBIC means Yim Sun Bin's Interview(oral history) Collection, DYK means Dora Yum Kim's Narrative (Chin, Soo-Young, ed. Doing What Had To Be Done: The Life Narrative of Dora Yum Kim.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9).

주요내용

- 미국 서부의 일본인 배척운동으로 극심한 차별상황에 직면해서도 능동적인 주체로서 미주 한인 사회의 초석을 이룬 사진신부의 적응과 특성은 일제강점기에서 중요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적 경험이 왜곡, 폄하되어 역사학적 연구와 평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 본 연구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료를 발굴하고, 심층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진신부 대다수가 가난하고 무학이라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상당수가 고학력자였고, 교육이 주된 이주동기였음을 학술적으로 규명했다. 또한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 사진신부 대다수가 이주한 캘리포니아의 차별적 환경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을 위한 사진신부들의 적응 노력과 다양한 역할을 객관적으로 탐구했다. 아울러 사진신부들의 경제적, 교육적, 정서적 역할이 한인 가족의 성공적인 생활 적응과 가족의 상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공헌했는지도 면밀히 분석했다.
- 본 연구의 우수 성과는 한인 사진신부들이 열악한 삶에 적응하면서도 다양한 역할을 포용하고 역경의 기회를 활용하여 한인 여성의 진취성과 개척자 정신을 모범으로 보여주었음을 역사학적으로 분석해 냈다는 점이다. 즉 초기 미주 한인 사회의 선구자였던 사진신부의 디아스포라 경험을 역사화하여 전 세계에 왜곡되었던 그들의 특성과 정체성을 바로잡는 중요한 성과를 실현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지난 100년 동안 역사학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되지 못 했던 일제강점기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동기와 적응노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선구자 정신, 역할과 공헌 등을 해외 역사학계에 자리매김하는 데에 공헌했다.

기대효과

- 새로운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방법론 제시로 역사학의 외연 추구
본 연구는 그간 한국근대사와 해외이주사 서술에서 간과되었던 사진신부의 존재와 경험에 대해 탈역사화된 영역을 발굴하여 분석하는 최초의 역사학적 학술연구로 공헌했다.
- 연구대상의 확대로 일제강점기 한인 정체성 재정립에 공헌
일제강점기 한인들의 삶과 가치관, 적응을 미주지역의 한인까지 확장하여 한인 정체성 확립에 공헌하여 한국인의 위상을 고양시키는 파급효과를 실현했다.
-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 교류와 학제 간 연구의 새로운 모델 구축
학문적으로 내용과 방법론 양면에서 한국 근대사, 해외이주사, 여성사, 한국학 분야의 학술적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해외학계에서 국제적 네트워크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에 공헌했다.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저역서]

고대 이집트의 역사

- 태고부터 페르시아의 정복까지 1권, 2권

 우수성과 대표자
 김태경

 연세대학교
 교수
 ● drtkkim
 @hanmail.net


[저승문화 자료 D/B를 활용한 연구서와 학술대회]

주요내용

- 제임스 헨리 브레스테드는 1894년 이집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미국인으로, 그의 저서인 *A History of Egypt: from the Earliest Times to the Persian Conquest*는 이집트를 연구하는 학문의 시발점이 된 저서이다. 이 책을 읽으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벌써 세계에서 가장 이른, 그토록 발달된 고대 문명을 건설한 고대 이집트인들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책이 출간된 1900년 초의 한정된 지식과 기술만으로 어떻게 그토록 유서 깊은 고대 국가의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흥미진진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는지, 책의 저자에 대해서도 줄곧 감탄하게 된다.
- 이 책은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재구성했고, 국내 정세는 물론 당시 주변 국가와의 교류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의 관련 저작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책은 고고학이 크게 발전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참고할 가치가 매우 큰 독보적인 저서이다.
- 책이 출간되던 당시에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초기 왕조에 대한 연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역서에서는 연도와 왕들의 순서 등 현대 역사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부분을 모두 주를 달아 표기함으로써 초기 저서가 갖는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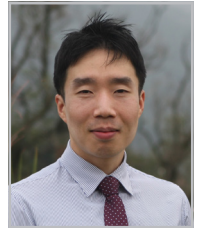
기대효과

- 이 책은 고대 이집트에 관한 모든 것, 즉 역사와 지리환경, 정치, 사회, 종교 등 모든 것을 다룬 전문서적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이집트학의 초반 연구 동향과 성과는 물론, 이집트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 이 책에는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의 기원 및 철학의 기원에 대한 의미심장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어, 이집트학뿐만 아니라 철학 및 종교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역사서로 분류되지만, 인문학적 소양을 넓혀 주고 인간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교양서이다.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논문]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취약계층 안전, 도시웰빙, 국제개발 융복합 연구

우수성과 대표자
김태형



서울대학교 교수
taehyoung.gim@snu.ac.kr



[취약계층 안전, 도시웰빙, 국제개발 통합연구의 일부 성과물]

주요내용

-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과 같이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근간이 되는 이슈로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회복탄력적인 지속가능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부터 안전에서 웰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을 고려한 융복합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환경적 문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본 연구성과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인간-교통-건조 환경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1) 도시교통 문제(교통사고로 인한 안전 위협,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에 의한 도시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2)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 변화가 범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특히 국제개발 차원에서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바, (3) 연구결과를 여러 조건에서 확인하기 위해 도시 및 교통 환경이 상이한 국내 및 해외 지역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본 성과의 파급력을 확인하였다.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단일학문의 접근을 지양하고 도시의 건조환경 특성과 개인의 인적 특성을 사회과학 제 분야의 이론, 개념, 방법론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공간적 특성 및 단위에 따라 영향력은 달리 나타나므로 본 연구성과는 정책수단이 작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준을 보이고 세부 방향을 지시하였다는 데에서 강점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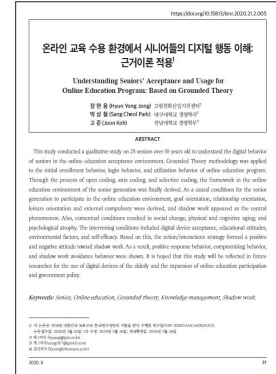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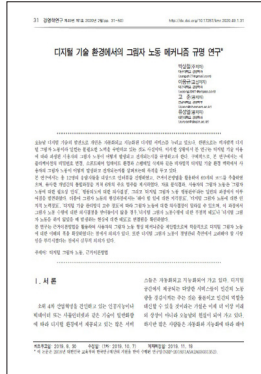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논문]

디지털 사회 속 그림자노동 현상에 대한 이해

우수성과 대표자
박상철



대구대학교
교수
sangch77@gmail.com



[경영학연구(좌),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가운데), 지식경영연구(우)]

주요내용

- 디지털 서비스는 사람들에게 편리성 혜택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디지털 일' 즉, '그림자노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Covid-19 이후 많은 일상을 디지털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림자노동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그림자노동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철학적 사상에 그쳤던 그림자노동을 디지털 서비스 환경이라는 맥락에서 그 현상을 포착하고, 그림자노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적 기제와 행태를 형성시키는지 밝혀내었다.
 - 1) 디지털 기술환경에서의 그림자노동 메커니즘 규명 연구
 -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 비밀번호 재설정 과정, 스팸메일 관리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림자노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원인-과정-결과의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 2) 맥도날디제이션 관점에서 본 SST 사용자의 그림자노동
 - 이 연구는 셀프서비스 기술 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그림자노동의 전개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운영원리에서 활용되는 맥도날디제이션 차원에서 해석하였다.
 - 3) 온라인 교육 수용환경에서 시니어들의 디지털행동이해: 근거이론 적용
 -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니어들의 디지털 교육과정에서 발견된 그림자노동 인식과 행태를 유형화하였다.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그림자노동의 출현을 기회로 판단하고,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가 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자노동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디지털 미래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일, 여가, 가정에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문학진흥 [저역서, 인재양성, 교과목 개발]

“터-무-니(터에 새겨진 무늬) 속의 더불어 삶, 인문도시 용산” 민·관·학이 참여하는 공조(共助) 용산학

 우수성과 대표자
박인찬

 숙명인문학연구소
교수

 chan9320
@sm.ac.kr


[(인문도시용산) 사업의 단계적 목표 / 지역전문가 및 용산공원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주요내용

- 용산 중심의 인문학 대중화: 2017년~2020년까지 용산의 터-무-니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문강좌 142강, 인문체험 93강, 인문주간 3회 등을 진행하여 용산구의 인문학 가치를 대중화하였다.
- 『터로 보는 용산의 생활사』 시리즈 발행: 용산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중서가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인문도시사업에 수행된 강좌 중 우수한 내용을 선정하여 『터로 보는 용산의 생활사』 I·II를 발간하였다. 책은 용산의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널리 배포하여 용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 지역전문가 및 ‘용산공원 해설사’ 양성: 2019년 용산구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인 [우리마을 힐링스케치 플랫폼 구축 사업], 2020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용산공원 부분 개방부지 해설사양성 프로그램] 등을 주관하여 숙명여대 학생들이 지역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전문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 연계: 숙명인문학연구소의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3명의 숙명여대 재학생 및 졸업생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관할 용산도시지역전시관에 매니저로 취업하였다. 앞으로도 숙명인문학연구소는 대학의 전문적 인적 자원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유도할 것이다.
- <(용산)지역협력과 문제해결> 교과목 개발: 용산의 과거와 현재를 검토하여 지역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청년 지역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양 교과목을 개발, 2020년 2학기에 개설하였다. 이 교과목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과 비전을 제안하며, 수강생들의 취업까지 연결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기대효과

- 숙명인문학연구소는 2017인문도시사업 “터-무-니(터에 새겨진 무늬) 속의 더불어 삶, 인문도시용산”을 통해 지역민들이 용산 지역을 깊이 이해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터로 보는 용산의 생활사』 I·II 발행, 지역전문가 및 ‘용산공원 해설사’ 양성, 숙명여대 재학생 및 졸업생의 용산도시 지역전시관 매니저 취업 연계 그리고 <(용산)지역협력과 문제 해결> 교과목 개발은 3년간에 걸친 인문도시사업의 큰 결실이다. 숙명인문학연구소는 2017인문도시사업을 통해 구축한 민·관·학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용산인문학’을 구축하는 한편, 일상의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을 개발하여 지역민은 물론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저역서]

원효전집의 해석학적 번역

우수성과 대표자 박태원



울산대학교(은퇴) 교수 twpark@ulsan.ac.kr



[원효의 대표작 『금강삼매경론』 번역본 - 2021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주요내용

- 한자의 다의성과 한문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으로 인해 한문으로 저술된 사상 관련 문헌들은 번역자의 이해를 명확히 드러내어야 한다. 그래야 번역자의 사상적 역량과 번역의 정확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새로운 번역의 토대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상 관련 한문저술 번역을 주도해 온 것은, 원전의 용어와 문구를 거의 그대로 채택하면서 최소한의 관계사를 한글로 부가하여 한국어 문장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이런 번역방식은 번역 내용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지고, 번역자의 역량과 이해 및 번역 타당성 정도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 ‘원효전집의 해석학적 연구’는 원효의 모든 저술을 대상으로 엄밀한 교감과 함께 번역자의 이해를 명확히 드러내는 번역 및 학술적 가치를 지닌 종합역주를 제시하는 최초의 해석학적 번역이다. 번역자의 이해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모든 원전 용어와 구절의 의미를 가급적 한국어로 풀었고, 보조문을 적극적으로 삽입하여 문장과 문맥의 의미에 대한 번역자의 이해를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역주에 포함시킨 <원효가 인용한 경론들의 현존 산스크리트본 대조와 산스크리트 해당 구절 번역>은 문헌학·번역론·언어학 등의 탐구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해석학적 번역은 영영英譯을 위해서도 최적화된 번역이어서, 원효전서 영역을 통한 원효학 연구의 세계적 확산을 전망케 한다.

기대효과

- 이 번역은 뛰어난 가독성과 이해 소통성으로 인해 원효 연구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 원효학 수립의 토대로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철학, 동아시아철학, 동서비교철학, 한국 인문학 발전의 토대로 기여할 것이다. 또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번역에 최적화된 것이기 때문에 원효전서의 외국어 번역을 위한 저본으로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 영역본을 비롯한 외국어 번역본이 출간되면 원효학 연구의 국제적 공조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한국학과 한국 전통철학의 세계화 작업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전통지성을 근거로 삼아 보편적 타당성과 현재적 문제해결력을 겸비한 한국 자생인문학을 수립하는 길을 활짝 열어준다.

The Mayor of Casterbridge 번역 연구

우수성과 대표자
사공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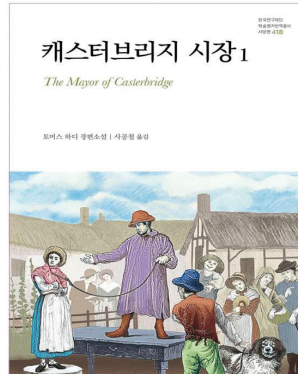


금강대학교

교수

☎ chaul1111

@hanmail.net



[캐스터브리지 시장]

주요내용

- 연구자는『캐스터브리지 시장』에 나타난 당대의 사회상과 인물의 법률행위를 연구의 주안점으로 포착하였다. 작품 속의 시대(1831-1856)에 행해지고 있는 ‘아내 팔기’(Wife Sale)라는 기막힌 일이 한국의 단편 작가 김유정의 <가을>에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 배경을 달리하는 두 소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는 이 희한한 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인류의 보편성과 동서고금을 통해 관류하고 있는 불변의 가치를 감지하게 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연구자는 본 텍스트에 대한 번역 연구에 착수하여 다음과 같은 ‘1독(讀) 3효(效)’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 ‘사회적 양성평등’의 실현이다.
이 소설을 읽은 독자는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며 가정을 지키는 힘의 원천은 ‘여성의 힘’이란 절반의 공조로 완성된다는 보편적 함의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사회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
- ‘교육적 연구함양’의 실현이다.
이 소설은 국내외 비평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석·박사 논문이나 학술 논문에서 다양한 주제와 논의를 양산하는 대작으로 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완성도 높은 번역 연구를 통해 작품 연구의 깊이를 함양하는데 기여했다.
- ‘학문적 세계지향’ 실현이다.
이 소설과 ‘아내 팔기’라는 유사한 주제를 담은 국내 소설가 김유정의 단편소설 <가을> (<사해공론>, 1936)과 연계하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국 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문학 번역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기대효과

- 『캐스터브리지 시장』의 읽기를 통해서 자국 문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후속적인 연구 발판으로 활용한다.
- ‘아내 팔기’(Wife Sale)에서 나타난 남성중심 질서의 붕괴를 통해서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상 정립에 활용한다.
- 이 소설의 번역으로 영문학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교양을 위해 책을 읽는 일반 독자들에게 읽히도록 하여 올바른 사회상 정립을 위한 인문 정신의 함양에 활용한다.

인문학진흥 [저역서, 콘텐츠]

모빌리티인문학 총서와 모바일 인문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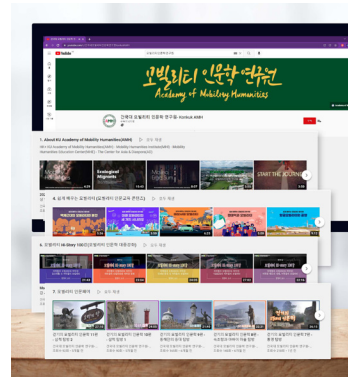
 우수성과 대표자
신인섭


건국대학교

교수

● seoha

@konkuk.ac.kr



[모빌리티인문학의 이론적 정립과 사회적 공유를 위한 저역서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주요내용

- 이 연구는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의 일환으로서 1단계 3년간 모빌리티인문학 총서(저역서) 34권을 출판했고, 모바일 인문콘텐츠(유튜브) 183건을 제작하였다. 2020년에는 11권의 총서와 120편의 모바일 인문콘텐츠를 제작하였다.
- 모빌리티인문학을 주제로 한 총서 발간과 콘텐츠 제작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초로 수행된 독창적 연구 성과이다. 모빌리티인문학 총서는 모빌리티인문학 관련 국내 연구 성과들을 집대성한 연구서, 해외의 우수한 최신 연구 성과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번역서, 모빌리티인문학 분야의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모빌리티인문학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교양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모빌리티 연구는 주로 사회학과 지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서유럽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지만, 이 연구는 모빌리티 연구의 '인문학적 전환'에 기초하는 세계 최초의 인문학적 모빌리티 연구이자 비서구권에서 처음 시도되는 연구이다.
- 모빌리티인문학을 주제로 한 총서 발간은 '이동'의 재현·상상·사유를 중심으로 모빌리티의 문화, 기술, 윤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산출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분야의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연구성과를 구체화한 콘텐츠 '모빌리티 Hi-Story 100강'과 모빌리티인문학 이론의 주요 개념과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촉진하는 콘텐츠 '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20강 제작하였다. 모바일 인문콘텐츠는 연구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고-모빌리티 시대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기대효과

- 이 연구는 인간과 테크놀로지가 서로에게 적응하면서 함께 진화하는 현상에 대한 철학, 문학, 역사학, 예술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과 토론을 촉진함으로써 인접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모바일 인문 콘텐츠는 일반 시민이 새로운 학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빌리티 인문학 뿐만 아니라 인문학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토양을 마련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모빌리티의 여러 문제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간적·사회적 문제들을 탐구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능력을 함양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에 미래 설계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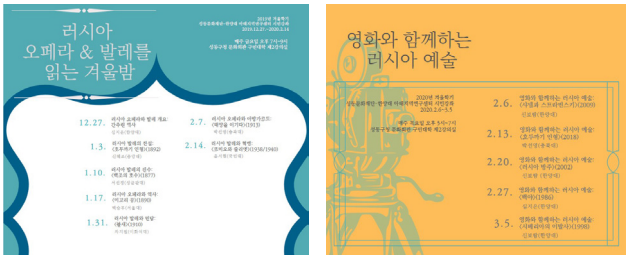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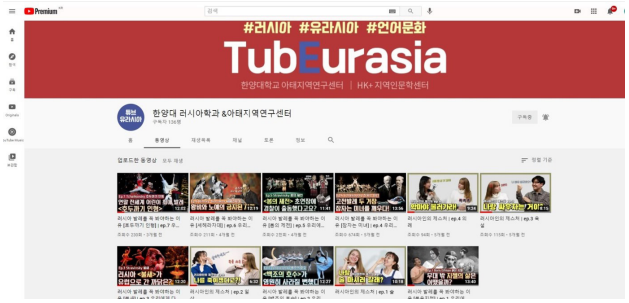
인문학진흥 [논문, 저역서]

유라시아 지역학의 인문학적 체계 확대와 간학문적 접근

우수성과 대표자
엄구호



한양대학교
교수
gosha
@hanyang.ac.kr



[사진1 유라시아 연구자 및 관심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유튜브]
[사진 2 시민강좌와 영화제]

주요내용

- 사회과학 기반의 유라시아 지역학을 넘어 인문학과의 융복합적 유라시아학의 학문적 체계 정립과 학적 인프라 구축을 해왔다. 유라시아 주요국과의 국가포럼을 주관하고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를 주도했다. 유라시아데이터베이스(EURIS) 구축과 함께 유라시아 연구 국제적 학술지인 Journal of Eurasian Studies를 통해 학적 인프라도 확대해 왔다.
- 유라시아 역내 여러 대학에 온라인 강좌를 지속해왔고 시민강좌와 유라시아 영화제를 통해 지역학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확산에도 큰 성과를 보였다. 특히 팬데믹 시대에 사회적 소통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서 TubEurasia 채널을 개설해 다양한 시민인문강좌의 내용들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있다. 유튜브 플랫폼은 단지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지역성'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 TubEurasia는 정책 이슈뿐만 아니라 <러시아 언어와 문화>, <러시아 예술>, <시사유라시아>라는 채널을 구축하고 각각에 <러시아인의 제스처>, <러시아 발레> 등 문화 시리즈도 제공함으로써 유라시아 및 러시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크게 높이고 있다. 다양한 예술 장르를 총망라하여 선보이는 것보다는 깊이 있고 밀도 높은 강의를 제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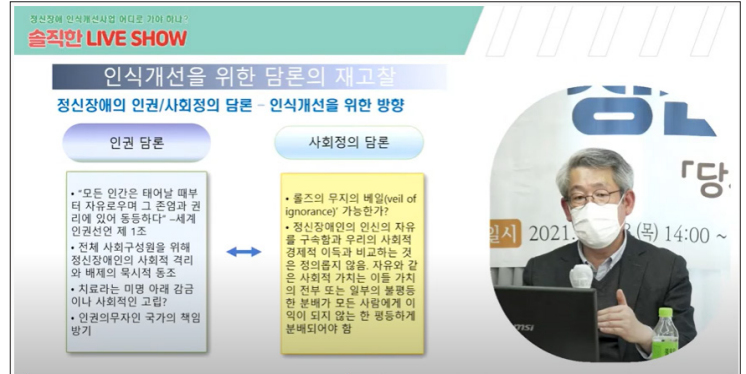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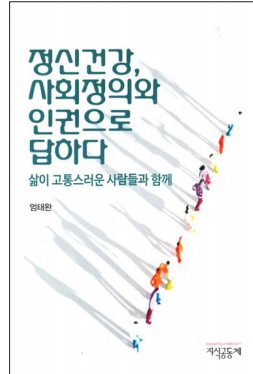
기대효과

- 언택트 시대에 맞는 연구 결과 확산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오프라인 시민교양강좌를 인문학 교양서 출판으로 연결하고 이를 또 물리적 경계 없이 공유가 가능한 온라인 유튜브 콘텐츠로 각색한 것은 시대와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사업의 적극적인 적응 방법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 그 선도성을 유지하고 파급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꾸준한 업로드를 지속할 것이다.

인문학진흥 [저역서]

사회정의와 인권의 패러다임으로 정신건강을 바라본 교양서적 발간

 우수성과 대표자
엄태완

 경남대학교
교수
tweom
@kyungnam.ac.kr

 [저서 : 정신건강, 사회정의와 인권으로 답하다]
[정신장애 인식개선 유튜브 생방송 강연]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돈 중심의 무한 경쟁 사회’속에서 전 지구적으로 소외된 사회적·정신적 약자들(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 등)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쓸모’를 근거로 정신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소외시켜왔다. 그리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연관성은 등한시하였으며, 주로 개인적 차원의 의지나 노력과 연결시켰다. 따라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멘탈이 약하다’고 치부하였고,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의 사회적 격리를 정당화해 왔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의 대안으로 사회구조적 차원의 ‘사회정의’와 ‘인권’이라는 새로운 회복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있다. 근현대의 평등주의,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에서 말하는 정의와 인권 문화 형성이 어떻게 사람들의 정신건강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말하는 ‘이번 생은 망했다’, ‘헬조선’의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 한편, 성과 확산을 위해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자살예방 특강(2020년) 및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모델(2021년)을 제안하였으며,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의 정신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유튜브 생방송 강연(2021년) 등을 수행하였다.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과 20대 및 30대의 주 독자층을 중심으로 개인의 정신적 문제를 단지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인권’ 문화 형성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회구성원들은 미래가 보다 안전하고 희망적이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할 때 공동체는 지나치게 팽창된 죽음의 음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인간사의 평균적인 정신질환이나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일상에서 안정되게 다루어질 수 있다. 본 서적은 이러한 과정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진다.



인문학진흥 [저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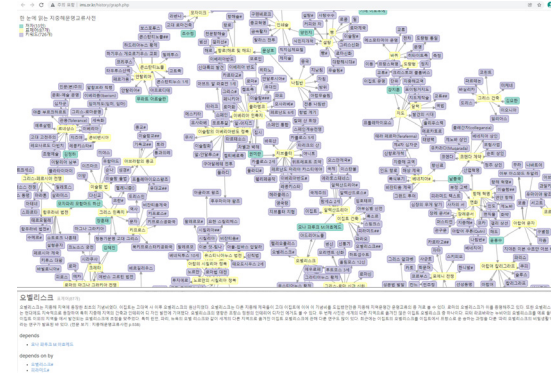
인문한국(HK+) [저서]

한국형 지중해문명교류학의 출범과 『지중해문명교류사전』

우수성과 대표자
윤용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kalid
@bufs.ac.kr



[좌] 지중해문명교류사전, [사진 우] 웹기반 지중해문명교류사전]

주요내용

- 『지중해문명교류사전』은 지구사적(Global History)인 시각에서 지중해 역사를 다룬 최초의 사전으로서 인류 문명의 모태인 지중해 문명에 대한 총체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 본 사전은 21세기 인류가 누리고 있는 문화와 문명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소유가 아닌 전체 인류의 공공재이며 이 문명은 교류를 통해 발전해 왔다는 인식 하에 지중해의 다양한 문화 유산, 지적 성취와 업적은 인류 문명의 공공재임을 밝히고자 한다.
- 교류의 관점에서 지중해를 담은 본 사전은 지중해 문명교류의 사상(事象)에 진력하고 담론을 생산하는 토대 구축의 학문적 필요성에 응답하는 대표적인 연구 성과다.
- 본 사전은 지중해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쳐 문명 간 교류의 관계 구도와 작용 그리고 후대에 미친 영향을 대표하는 87개의 주요 키워드를 담고 있다. 사전의 표제어는 문명교류의 흐름과 교류에 근거해 제도, 규범, 민족지, 이주, 종교, 지식, 문서, 사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본 사전은 ‘지중해 문명교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토대를 구축하고, 탈(脫)자기중심적 시각에서 지중해의 역사적 사건과 기록들을 객관적 시각으로 사전에 담았다.
- 문명교류학 연구의 근본 취지와 목적은 여러 역사 주체의 관계 및 변천의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 인류 공존의 진의(眞意)를 구현함으로써, 공존과 소통이 강조되는 다문화 글로벌 사회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 본 사전은 지중해 문명 교류의 흐름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글로벌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외 지역학연구소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의 결과물이다.

기대효과

- 『지중해문명교류사전』은 지중해문명교류학 연구의 학문적 토대로서, 우리의 관점에서 지중해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한국형 문명교류학’의 공식적인 출범을 의미한다.
- 본 사전은 지중해의 주요 사건과 현상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문명 교류의 관점에서 지중해 역사에 대한 균형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문명교류학의 확산과 일반화를 위한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저역서]

근세 및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자료 집대성

-출판 및 DB화-

 우수성과 대표자
이강민

 한양대학교
교수

 ● ikangmin
@hanyang.ac.kr


[근세 및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자료 총서 23집-40집]

주요내용

- 유사 이래 일본은 한국어 학습을 필요로 했고 한국어에 대한 관찰을 지속해왔다. 본 연구는 18세기 이후 1925년까지 약 230년에 걸쳐 일본에서 제작된 한국어 학습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여 각각의 자료에 대한 영인과 함께 해제를 기술함으로써 연구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학술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에도(江戸)시대에 제작된 14종의 필사본,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인쇄·간행된 88종의 한국어 학습자료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학습자료는 국어사, 일본어사, 한일관계사 등의 연구에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최근 국내외에서 이들 자료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보존을 위한 DB구축과 영인 출판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되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의 기간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근대어가 형성되어 간 과도기적인 시기로, 본 연구에 의해 이제까지 연구의 사각지점에 놓여 있던 개화기의 한국어나 도쿄(東京)어 형성과 관련된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한국의 일본어학과 국어학, 그리고 자문그룹으로서 일본의 한국어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진행되었으며, 시대적으로는 전근대와 근대를 아우르는 시대 횡단적인 작업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연구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이 전문영역과 시대를 횡단하는 인접학문의 협업은 새로운 형태의 연구주제와 다양한 후속연구를 파생시킬 수 있다.
- 특히 1880년을 기점으로 간행되기 시작한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다양화되어 왔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부철도, 토지조사, 우편 및 법률·행정과 관련된 학습서가 등장하고 있어 언어 연구와 근대사 연구를 접목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학제적 연구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조사 대상의 자료 속에는 당시 유행했던 한국의 단가, 속담, 민속 용어 등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 국문학이나 민속학 등 인문학 제반 분야와 관련된 연구기반의 확충에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라이프니츠의 『신인간지성론 1, 2』

- 서양 근대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지식론 논쟁

우수성과 대표자
이상명송실대학교
교수leesamy
@ssu.ac.kr

[G. W. 라이프니츠, 『신인간지성론 1, 2』, 이상명 옮김, 아카넷, 2020.]

주요내용

-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라는 문제에 서양 근대 철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경험주의자들은 우리의 모든 지식이 감각과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하고, 이성주의자들은 그것과 더불어 인간 정신에 경험에서 기원하지 않는 본유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본유 원리는 오직 지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한다. 경험주의 지식론의 대표작인 로크의 『인간지성론』에 대항하여 라이프니츠는 『신인간지성론』을 통해서 이성주의 지식론을 펼친다
- 그는 『신인간지성론』을 로크의 견해를 대변하는 ‘필라레테스’라는 인물과 자신의 견해를 대변하는 ‘테오피루스’라는 인물 간의 대화로 구성하였다. 그래서 이 책은 지식론에 대한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간의 논쟁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이프니츠의 주요 철학 사상도 보여준다.
- 라이프니츠는 이 저작에서 필연적 진리, 미세 지각론, 연속성의 법칙, 물질의 현실적 무한 분할, 논리적 추론과 증명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자신이 구축한 형이상학 체계를 설명하면서 학문의 조화, 자연의 질서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 인간의 지식을 감각적 지식, 증명적 지식, 직관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정의와 증명을 통한 연역적 방법이 적용되는 필연성의 영역과 경험과 사실의 문제를 다루는 우연성의 영역을 구분한다. 또한 개연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귀납 논리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진리 탐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기대효과

- 우리의 지식과 학문은 논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논쟁 없이 진리를 탐구할 수 없다. 『신인간지성론』은 지식의 기원에 관한 서양 근대 이성주의자와 경험주의자의 논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라이프니츠의 철학이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고 관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저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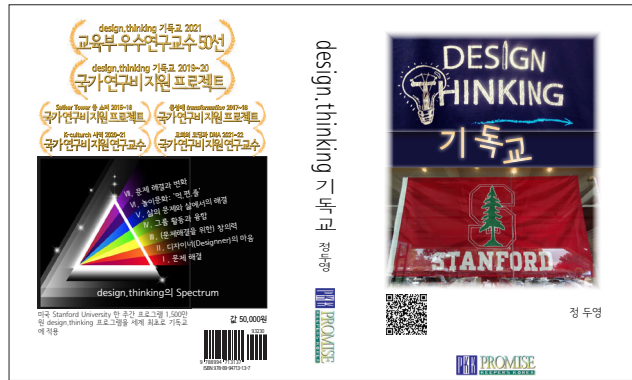
design.thinking 기독교

(design.thinking christianity. Stanford University의 d.school의 design thinking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기독교에 적용)

우수성과 대표자
정두영



고신대학교
교수
pkinkorea
@hanmail.net



[『design.thinking 기독교』 표지]

주요내용

- 본 성과물은 기독교 문제와 문제해결, 디자이너의 마음(예수님의 design.thinking 방법, design.thinking과 여성의 마음,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력(영적인 통찰력, 앞을 내다보는 기독교의 계시사역), 그룹 활동과 융합 기독교/대학교, 삶의 문제와 삶에서의 해결(design.thinking@church의 주안점, process, 예배, 평창올림픽교회 사역), 기독교와 놀이문화('먹.편.즐')라는 내용을 통해 문제 해결과 변화(성경과 변화, 변화와 trans-, 변화의 쓰나미 = digital transformation, 특-특-특 통-통-통 시대, 직장(교회)이 없는 직장(교회), Aqua Man Aqua Church, Emerging Church)를 도모하고 있다.

design.thinking 프리즘(Prism)의 7가지 스펙트럼(Spectrum)	기독교에의 대입	기독교의 문제에 대한 대안
I. 문제 해결	문제 회피	문제 해결
II. 디자이너(Designer)의 마음	성직자 전문화와 교권주의 (Hierarchy)	디자이너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수평적인 기독교 (사도와 선지자의 계시사역)
III.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력	전통과 관습	영적인 통찰력(계시사역, design.thinking@church)
IV. 그룹 활동과 융합	분리주의: 성전과 성직자	융합 기독교
V. 삶의 문제와 삶에서의 해결	삶과 분리된 신앙	삶의 신학, 현존의 신학, design.thinking@church 예배
VI. 놀이문화: '먹.편.즐'	거룩한 성전에서의 예배	예수님의 식탁교제, 잔치 문화
VII. 문제 해결과 변화	율법과 은혜	Methamorphosis

결론: 삶의 변화에 대한 디자인(Methamorphosis + Culturh(= Culture + Church))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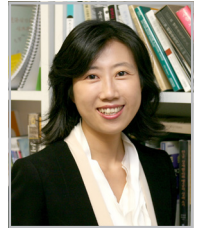
- 연구성과의 기대효과는 기독교가 삶 가운데에서의 현존의 신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삶 가운데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맥락의 design.thinking@church 예배 모델(교회 장소와 목회자의 인도와 예배 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서든지 성경 본문 스토리에서 문제발견과 영적인 통찰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실제적인 삶에 적용)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이미 평창올림픽교회에서 적용, 실천한 바 있으며, 건물교회에 국한되지 않는 일터사역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저역서]

고려시대 한시와 국어시가의 상관성

우수성과 대표자
정소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chong33
@ewha.ac.kr



[고려시대 한시와 국어시가의 상관성]

고려시대 한시와 국어시가의 상관관계사				
(가) 시대	(나1) 갈래에 따른 특징1 : 국어시가와 한시 비교 (이중언어시인)	(나2) 갈래에 따른 특징2 : 국어시가의 한시화 (번역과 수용)	(나3) 갈래에 따른 특징3 : 한시의 국어시가화	(다) 향유층에 따른 특징
10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가와 한역시 - 균여의 <보현십원가>와 최행귀의 <보현십원송> - 장연우의 한역시 <한송정> 		
11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가와 한시 (현종과 신하들) 			
12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가와 한시(윤연인) • 고려가요와 한시 (예종, 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사 및 고대가요의 한시화 - 이규보, <동명왕편> 		
13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체가와 한시 (사대부, <한림별곡>) • 향가와 한시 (승려 충지, 혜심의 향가의 흔적과 한시) • 일연, <삼국유사>의 향가 수용과 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가의 한시화 - 승려 충지의 <비단가>, 승려 혜심의 <기사보가> 등 - <삼국유사>의 <도술가>와 한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체 국어시가 (경기체가, <약잡가사>의 <여부가> 등) • 현토가요 • 한문가요 (한시의 노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대부'의 한시와 국어시가의 상관관계 • '승려'의 한시와 국어시가의 상관관계 • '백성'의 국어시가와 사대부, 승려의 수용
14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체가와 한시(안축) • 시조와 한시(우탁, 이조년, 이색, 원천석, 정몽주, 길재, 이준오, 정도전) • 가사와 한시(승려 해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요와 소악부 (이제현과 민사평) • 한시 속의 국어시가 (고려 한시 상당수 속에 나타난 다양한 국어시가의 흔적들) • 노랫말 부전(不傳) 국어시가의 한역 - <고려사> 역지 등 		

주요내용

● 본서는 훈민정음이라는 기록매체가 생긴 조선시대와 달리, 기록할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었던 고려시대, 곧 한문과 향찰을 문자(文字)로 사용하면서 국어를 구어(口語)로 한 이중언어시대인 10세기에서 14세기 까지 약 500여 년간 고려시대 시가사의 총체적 모습을 추적한 것이다. 동시대에 공존했던 고려 한시와 국어시가는 서로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둘의 관련성을 통해서 본서는 고려 국어시가의 개인서정시로서의 면모와 향가의 기록문학성 강화 등 한문학에 대한 민족어문학의 구체적인 대응과 성장을 살펴보고, 고려시대 한시가 국어시가를 어떻게 수용함으로써 민족문학으로서 주체적 한시를 추구하였는지를 밝혔다. 이로써 고려시대에 한시와 국어시가를 대등하게 인식한 점과 고려 시가 문학 전체를 어떻게 향유하였는지 그 지형도를 파악하고, 문학사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대효과

● 본 성과를 통해서 그간 연구사에서 집중된 조선시대 이후의 특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의 역사적 연원으로서 전(前)단계인 고려시대를 해명하여 한국 시가사의 한시와 국어시가의 역학적 구도 및 연속성의 빈 자리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또한 그간 연구사에서 중국 시가와 한국 시가의 관계는 어느 정도 해명되었으나, 정작 한국 시가 내에서 한시와 국어시가의 긴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총체적 모습을 재구하였고, 무엇보다 국문 기록매체가 없던 '한문' 전용시대인 고려시대에 어떻게, 그리고 왜 국어시가는 한시에 대응했는지, 또 상층 사대부는 왜 국어시가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는지 문학과 언어의 상관관계 변천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그간 중등 문학교육에서는 문학사의 다양한 현상을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인 지식에 머무르는 감이 없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본서는 학습자가 한시와 국어시가, 한문과 국어 등의 이분적인 구분에서 통합적이며 융합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문학사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 확장된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인문학진흥 [인문강좌운영]

인문도시지원사업 해양 여수 인문도시를 꿈꾸다

우수성과 대표자
조원일



전남대학교
교수

● mengzi
@jnu.ac.kr



주요내용

- 본 성과물은 인문도시지원사업으로 여수지역의 인문학적 자산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해당 지역의 시민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통한 인생의 참된 가치와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돌이켜 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갖게 했다. 본 사업의 브랜드 명칭을 “해양 여수 인문도시를 꿈꾸다”라고 한 이유는 해양문화관광 도시로서 여수의 인문학적 자산과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 문화적 유산 충무공 이순신·임진왜란의 발굴을 통하여 지역 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양관광문화도시 여수의 인문도시사업은 여수학 인문강좌, 여수 “섬, 해양, 인문” 인문체험, 여수해양문화 인문축제 등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여수시는 이미 해양을 주제로 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해양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했으며, 2025년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하여 “섬과 해양 그리고 인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부응하는 인문도시사업을 수행하여 여수시의 인문도시로서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고 보인다. 동시에 지역소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자산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더불어 소통하고 상생하는 기회를 창출했으며, 시민들이 대학과 연계한 인문학프로그램의 참가를 통하여 대학생 및 지자체 공무원 등과 함께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우리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의 사업수행을 토대로 정착된 해양 여수의 인문학적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인문학의 향기가 피어나는 인문도시의 완성을 지향해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의 인생관과 삶의 가치관이 보다 다양하고 풍요롭게 되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답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구현했다.

기대효과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음. 먼저 해당 지역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제고시킬 수 있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고품격의 인문학강좌는 시민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아울러 다양한 인문학강좌는 여수지역의 시민들에게 인문학 붐을 조성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저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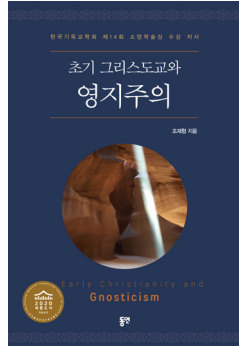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Early Christianity and Gnosticism)

: 고대 영지사상을 통해서 본 그리스도교의 기원과 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우수성과 대표자
조재형



케이씨대학교
교수
disciples.cho@gmail.com



[좌) 연구성과 출판 저서 사진, 우)소망학술상 시상 사진]

주요내용

- 이 연구성과는 신약성서와 나그함마디 문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교 이전의 고대 영지사상을 추적하여 그것이 어떻게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학에 영향을 주었고, 각각의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변경/발전시켰는가를 연구하여 오늘날 물질만능의 현대 사회에게 새로운 기독교적 영성과 가치관을 제안하고, 나그함마디 서고에 대한 학문적/대중적 관심을 시킨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신약성서와 나그함마디 서고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교 이전의 고대 영지주의 사상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학에 끼친 영향을 추적한다.
- 둘째, 정통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영지주의 공동체가 어떻게 자신들의 관점에서 고대 영지주의 사상을 해석하여 독자적인 문서(신약성서와 나그함마디 문서)를 산출하였는가를 규명한다.
- 셋째, 고대 영지주의 사상이 그리스도교의 이단이 아닌 종교사 안에서 발전해 오다가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음을 밝힌다. 넷째, 영지주의와 영지를 구분하여 그리스도교 신학을 혁신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나그함마디 문서의 중요성을 알린다.

기대효과

- 첫째, 사해사본과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나그함마디 문서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
- 둘째, 정제된 그리스도교 신학을 혁신할 수 있는 원천자료를 확보해서 현대시대에 맞는 인문학적 신학과 영성에 근거한 윤리적 모델(물질주의를 극복하는)을 제시한다.
- 셋째, 학문적으로는 영지주의 연구에서 흔하게 범하는 시대착오의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그리스도교와 역사적 예수 연구, 그리고 콥트어 연구를 활성화 시킨다.
- 넷째, 고대 영지주의 사상은 신약성서 분야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사, 이단연구, 종교학 등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타학문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영지주의 사상을 매개로 다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연구도 가능케 한다.
- 다섯째, 배타적인 그리스도교의 신학이 아닌 인문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고대의 문서들을 비교종교학적 시각에서 열린 자세로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섯째, 교육적 측면에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다양한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삼위일체 논쟁, 예수의 신성과 인성 논쟁 등에 대한 풍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인문학진흥 [저역서]

교정사역복지론

 우수성과 대표자
천정환

 동서대학교
교수
928jh
@hanmail.net


[(저서) 교정사역복지론]

주요내용

- 교정사역(선교)은 종교인이 교도소 범죄인에게 종교를 통해 올바르게 교화시키는 분야이다. 교정사역은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 헌신적인 선교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한국의 교정선교는 주로 선교적 차원에서 믿음만 강조하였고 자선적 선교에 머물러 선교의 과학화가 되지 않아 학문적 차원으로 되지 못하였다. 교정사역에서 범죄인의 이상행동에 대해 정확한 원인조사와 심리학적, 사회복지적, 상담학적 전문적 개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이는 교정사역은 여러 학문적 지식이 내포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교정사역에 관한 기존 연구도 주로 특정학문의 단선적 접근으로 교정선교에 내포된 다양한 학제적 성격이 없었다.
- 사역현장에서 수용자의 이해를 위해서는 특정 분야의 학문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는 바 이는 교정사역은 교정심리, 형사정책, 인문학, 경제학, 법학, 통계학, 관료제, 상담학, 복지학 등의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정사역자들은 교정선교를 선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과학성이 부족하여 교정선교의 효과를 계량화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교정선교의 접근으로 신학적 차원과 개인인성의 차원이라는 미시적 접근으로 교정선교의 환경인 입법적,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미디어적 환경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 없었다.
-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정사역복지론이라는 새 이론을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교정사역역사론, 교정사역법제론, 교정사역실천론, 교정사역복지론, 교정사역심리론, 교정사역 프로그램론, 교정사역영역론, 특수분야의 교정사역론 등으로 구성하였다.

기대효과

- 사회적 효과 : 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선교의 체계화와 과학화로 종교교화의 효율화와 지속적 종교교화가 되어 재범의 감소와 이로 인한 사회방위의 증대 및 사회비용의 감소로 인하여 국민경제와 교정경제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교정선교에 대한 종교인들과 국민들의 관심의 증대와 균종제도처럼 교도소 교종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종교적, 사회적 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
- 학문적 효과 : 실천신학의 한 부분인 교정선교를 과학화하고 학제적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교정선교분야에 대해 학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하였으며 이에 관한 교육 과정의 신설과 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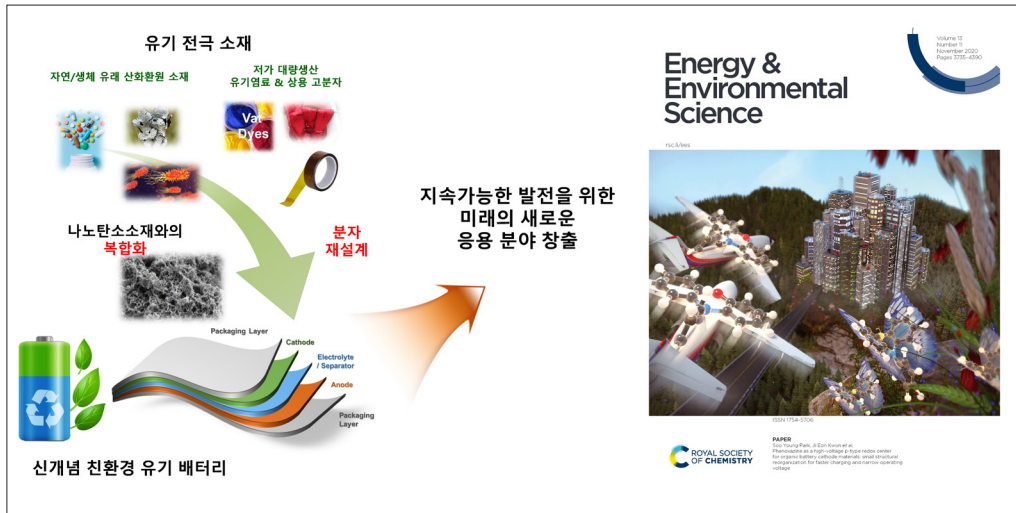
이공학술연구기반구축 [논문, 특허]

차세대 친환경 이차전지 구현을 위한 고성능 유기물 전극소재 개발

우수성과 대표자
권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jekwon
@kist.re.kr



[좌)유기 전극 소재 연구 개념도, 우) 및 대표연구성과 (저널 표지논문)]

주요내용

- 고성능 이차전지의 개발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기자동차와 ESS의 핵심요소로서 관련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전이금속 산화물계 전극재 기반의 리튬이온전지는 그 성능이 이론적 한계 부딪혔으며, 원자재의 제한된 매장량과 지역적 편중에 따라 원가 상승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차세대 전지가 연구되고 있으나, 그 중 특히 친환경 이차전지 구현을 위한 유기물 전극소재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높은 성능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는 상용의 전이금속 산화물 소재 및 타 차세대 소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 본 연구에서는 1) 자연/생체재료 또는 상용 저가의 고분자 소재를 분석하여 재설계함으로써 새로운 산화환원 기능단을 개발하여 화학적 다양성을 넓히고, 2) 성능(출력, 전압, 용량 등)에 영향을 주는 분자 구조적 특징 중 타 연구자들이 발견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찾아내어 새로운 예측모델을 수립하였으며, 3) 분자수준-나노수준-벌크전극수준 등 멀티스케일에서의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CNT, 그래핀 등과 복합소재화하여 한계극복을 위한 창의적인 소재설계전략을 제시하였다.
- 이를 통해 세계최고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다양한 유기 전극소재를 개발하여 국제 저명 저널(SCIE impact factor 20 이상/JCR 분야 상위 3% 이내)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고 특허를 출원/등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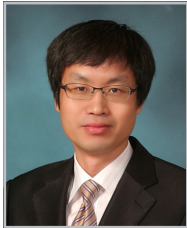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기존 리튬이온전지로는 구현하기 힘든 친환경, 저가의 차세대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원천기술과 소재확보에 기여를 하였다.
- 개발된 유기 전극소재는 차세대 전지외에도, 산화환원 특성을 응용할 수 있는 수소생산, 인공광합성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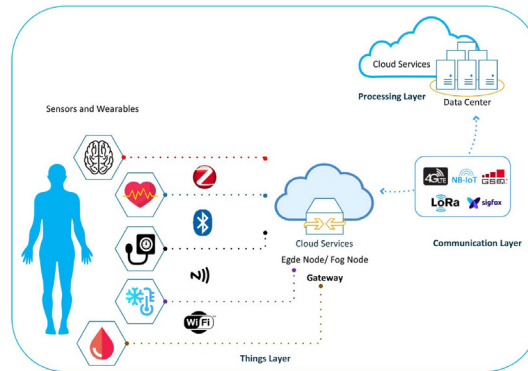
개인기초연구 [논문]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물인터넷 통신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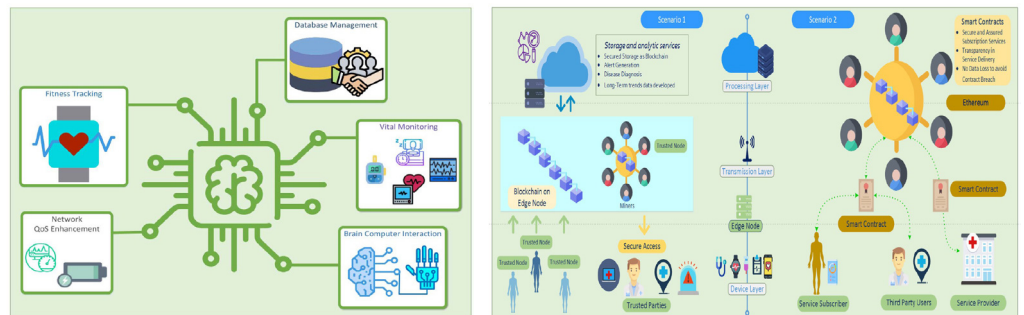
우수성과 대표자
김성원



영남대학교
교수
SWON
@yu.ac.kr



[의료용 사물인터넷 구성도]



[좌)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용 사물인터넷 통신, 우)블록체인 보안 기술이 적용된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구성도]

주요내용

- 공장 설비, 차량 관리, 모바일 기기, 스마트 워치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의 연결이 주로 와이파이와 의존했던 것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5G 및 기타 유형의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 양의 급증이나 해킹의 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통신 기술을 제안하였다.
- 헬스케어와 결합하여 환자들은 사물인터넷 모니터와 웨어러블 기기로 의료진과 계속 연결되어 향상된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전문가는 이러한 기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환자의 상태를 더욱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기대효과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센서가 취득하는 대용량 정보의 특징을 추출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적으로 대응하는 사물인터넷 통신기술을 제안하여 성능 저하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구를 통해 향상된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하여 스마트 시티의 운송, 물류, 그리드 에너지, 스마트 제조, 헬스케어, 농업 등에 적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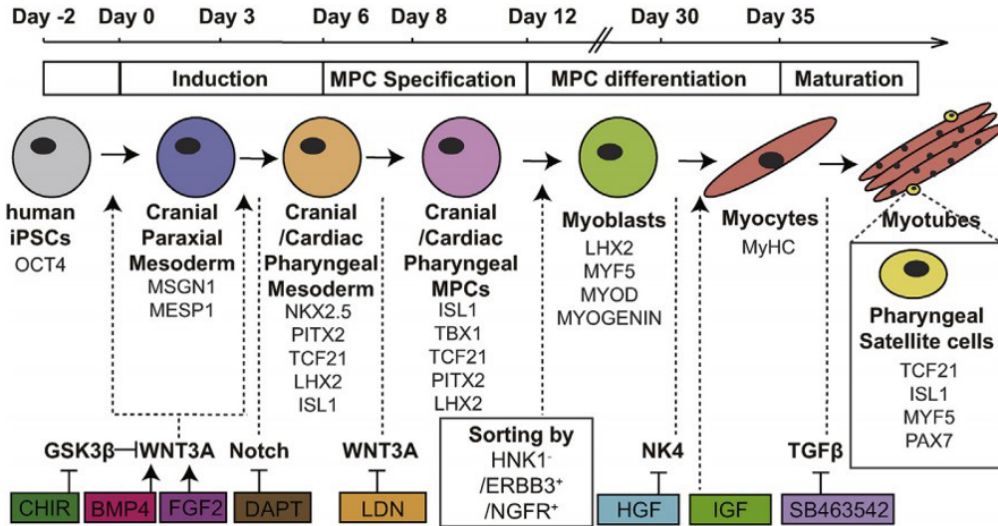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논문]

환자유래 유도만능줄기세포 기반 얼굴골격근육 분화프로토콜 개발

우수성과 대표자
김은혜



충북대학교
교수
iwsleh
@nate.com



[유도만능줄기세포로부터 얼굴골격근을 분화시키는 프로토콜의 모식도]

주요내용

- 유도만능줄기세포는 분화된 성체세포에서 분화전 원시상태로 되돌아간 줄기세포로 신경과 근육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재생의학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얼굴골격근육은 다른 근육들과는 완전히 다른 발생학적 기원 및 분화기전을 가지며 차별화된 생리/병리학적 특성을 지님에도 기존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얼굴골격근 분화연구가 전무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학문후속세대 박사후해외연수 과제를 통해서 미국 예모리 의과대학 Hyojung Choo교수의 지도아래 환자유래 유도만능줄기세포로부터 얼굴골격근의 특이적 분화 프로토콜을 최초로 개발하여 과학기술 분야 중 의공학분야 상위 3%에 속하는 Biomaterials지에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기대효과

- 본 성과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알려진 루게릭병에 영향을 받지 않는 눈운동근육과 같은 얼굴골격근의 특이적 분화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연구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프로토콜은 루게릭병으로부터 얼굴골격근이 보호되는 병태생리학적 기전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발생기원별 난치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개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모델의 한계를 넘어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안전성 검증 모델을 포함한 주요 연구플랫폼들로 제공 가능하고, 향후 재생의학 및 세포치료분야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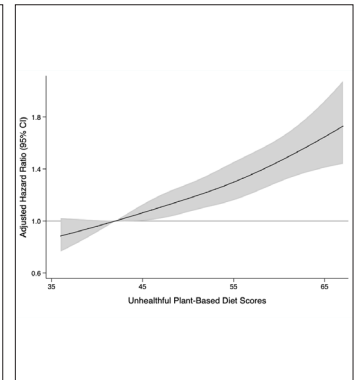
개인기초연구 [논문]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요인으로서 식물성 기반 식사의 질 평가 규명

우수성과 대표자
김지혜



경희대학교
교수
kjhye
@khu.ac.kr



[균형잡힌 식물성 기반 식사 및 건강하지 않은 식물성 기반 식사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증가]

주요내용

- 본 연구는 16년간 40세 이상 한국 성인들을 추적관찰함으로써 식사에서 식물성 식품의 질이 대사증후군* 발생의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다 (*대사증후군: 복부비만, 높은 혈압,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콜레스테롤혈증, 고혈당 등 여러가지 대사 장애 질환을 한 사람이 동시 다발적으로 가진 상태). 기존의 연구에서는 동물성 식품을 부분 또는 완전히 배제하고 식물성 식품의 섭취만을 증가시키는 식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모든 식물성 식품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식사에서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식물성 식품의 질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식물성 기반 식사 평가 지표(plant-based diet index)를 개발하였고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 건강하지 않은 식물성 기반 식사(Unhealthy plant-based diet score) 점수가 높은 사람, 즉 질이 낮은 식물성 식품(정제된 곡류, 가당음료, 설탕과 디저트류, 절임 채소류)을 많이 포함하고, 질이 좋은 식물성 식품(통곡류, 생과일, 채소류, 콩류, 견과류)을 적게 포함한 식사를 한 사람은 지표 점수가 낮은 사람에 비해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44% 증가함을 밝혔다. 본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PLOS Medicine (Impact factor=11.069)에 게재되었다.

기대효과

- 다양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식가지침 개선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 식생활 교육을 통해 만성질환 발생률 및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한 식물성 식품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동물성 식품 소비를 줄임으로써 식품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식품 환경 시스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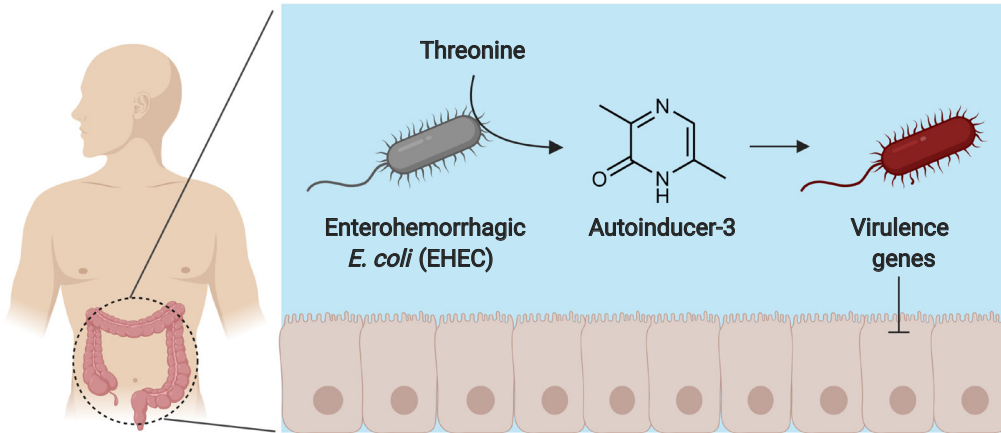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논문]

인간의 건강·질병과 관련된 새로운 마이크로바이옴 대사체의 발굴

우수성과 대표자
김충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 chungsub.kim
@skku.edu



[식중독균(Enterohemorrhagic E. coli)의 병원성 유발물질인 autoinducer-3의 화학구조 및 생합성경로의 규명]

주요내용

- *E. coli* 는 인간의 대장에 공생하는 대표적인 장내미생물이며, 생물학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박테리아이지만, 이 박테리아의 신호전달물질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2003년, 대표적인 식중독 균인 장출혈성 대장균 (Enterohemorrhagic E. coli, EHEC)의 병원성을 매개하는 신호전달물질의 존재가 보고되었으나, 그 화학적 구조와 생합성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이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물화학, 유기합성학, 생화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autoinducer-3(AI-3)라고 불리는 EHEC의 신호전달물질의 화학적 구조, 생합성 유전자 및 생합성 경로를 밝혀내었고, 이 물질이 EHEC의 병원성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AI-3와 유사한 다른 신호전달물질들도 발견하였는데, 이들 중 일부는 인간의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본 연구결과는 20년 가까이 풀리지 않았던 인간과 마이크로바이옴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낸 중요한 결과이며, EHEC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내용은 ACS Central Science (Impact Factor = 14.553)에 게재되었다.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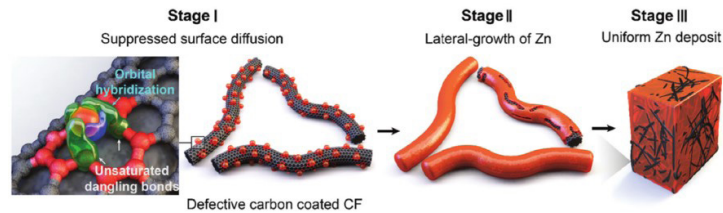
- 본 연구내용은 인간과 마이크로바이옴간의 분자적 상호작용을 밝혀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래 헬스케어의 핵심연구분야로서 마이크로바이옴은 크게 각광받고 있다.
-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간과 마이크로바이옴간의 상호작용을 밝혀냄으로써, 난치병 치료제 개발, 진단·예방전략 수립 등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기초연구 [논문, 특허]

세계 최고 수명 비발화 ESS용 수계 전지 개발

 우수성과 대표자
김희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heetak.kim
@kaist.ac.kr

 [고밀도 탄소 결합 계면을 통한 아연 덴드라이트 형성 억제 기술 개요도]
[본 논문이 선정된 저널 표지]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피크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ESS (Energy storage systems) 기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기존 리튬이온전지를 이용한 ESS는 리튬이온전지의 발화성의 문제로 17년부터 20년도 5월까지 총 21건의 화재사고를 발생시켰다.
- 이에, 근원적 비발화성을 가진 수계 전해질을 이용하는 아연-브롬 레독스 흐름전지가 차세대 ESS로 개발되었으나, 아연 음극의 수명 한계로 인해 상용화가 지연되어 왔다.
- 아연 금속은 충·방전 과정 중 불균일한 돌기 형태의 덴드라이트를 형성하며, 이는 전지의 내부단락을 일으켜 전지의 수명을 감소시킨다.
- 본 연구에서는 낮은 표면에너지를 지닌 탄소 전극 계면에서는 아연핵의 표면 확산을 통한 자가 응집 현상이 발생하고, 본 표면응집이 덴드라이트 형성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 나아가, 특정 탄소결합구조에서는 아연핵의 표면확산이 억제되어 덴드라이트를 발생시키지 않음을 발견해 내었다.
- 본 연구팀은 고밀도의 결합구조를 지닌 카본전극을 개발하고, 이를 아연-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에 적용하여, 리튬이온전지의 30배에 달하는 높은 충방전 전류밀도에서, 5,000사이클 이상의 수명특성을 구현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다양한 레독스 흐름 전지에 대해 보고된 결과 중 가장 뛰어난 수명성능이다.

기대효과

- 아연브롬전지는 리튬이온전지 대비 1/100의 활물질 에너지 당 가격을 가져 초저가 전지를 구현할 수 있으며, 근원적 비발화성을 가지므로, 본 수명향상기술 (5000사이클 이상)을 적용하여 비발화 ESS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출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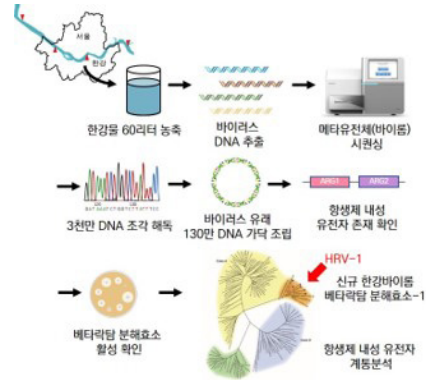
한강 박테리오파지 유전체에서의 신규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발견 및 기능 증명

우수성과 대표자
문기라



인하대학교
전임연구원

krmoon
@hnibr.re.kr



[좌)한강 표층 시료 채취 현장, 우)신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한강 박테리오파지 유전체 탐색 모식도]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한강 내 서식하는 파지 유전체 내에서 신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발견하였다.
- 세균을 감염하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파지)는 바다, 호수, 토양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되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로 존재하는 생물학적 개체이다. 파지는 미생물 생태계 내에서 세균감염을 통해 개체 수 조절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세균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수평적 유전자 이동의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파지에 의해 숙주 세균 간 전파될 수 있는 주요 유전자 중 하나로 알려졌지만 발견되는 빈도가 낮고, 발견된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실제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 파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분리와 배양이 필수적이지만 숙주 세균의 배양이 어렵기 때문에 파지 연구에는 제약이 많아왔다.
- 파지를 배양하지 않고 환경 내에 있는 유전자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바이러스 메타유전체(바이롬) 방법을 이용하여 한강 내에 존재하는 대용량 바이러스 유전체를 분석하여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 그 결과, 베타락탐, 폴리믹신,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25개의 다양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찾아냈으며 그 중 4개의 유전자는 베타락탐 분해효소 유전자로 판명되었다.
- 유전자 분석 결과, 지금까지 보고된 어떠한 베타락탐 분해효소 유전자와도 염기서열 연관관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신규 항생제 내성 유전자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 또한, 이 유전자를 대장균에 발현시켜 항생제 내성을 시험한 결과,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카바페넴 등의 항생제에 대하여 강한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것이 입증되었다.
- 따라서 이들 유전자는 각 항생제 내성 기작에 기초하여 HRV-1(한강 바이롬 베타락탐 분해효소-1), HRVM-1(한강 바이롬 메탈로베타락탐 분해효소-1)으로 명명하였다.

기대효과

- 본 연구 성과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연구 분야에서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 개체 내에서도 새로운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발견될 수 있음을 제시하여 항생제 내성 유전자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신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보고함으로써 추후 일어날 수 있는 항생제 내성균의 주요 유전자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내에서 수집되고 수행되어 온 바이러스 메타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비롯한 유용 세균 유전자를 발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기초연구 [논문, 특허]

마찰전기의 출력 극대화 원천기술 개발

우수성과 대표자
박진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jhpark98
@koreatech.ac.kr



[a] 출력 부스트 어댑터의 개략도. b,c) 마찰전기 출력 증폭 메커니즘. d) 마찰전기 출력 전압(5000V) f) 크록스 튜브 및 g) 플라스마 구동 사진
[관련 기술 과학 유튜브 홍보 (조회수 2만회 이상)]

주요내용

- 겨울철 옷을 입거나 물건을 만질 때 생기는 마찰전기를 활용하면, 외부 전원 없이 발광다이오드(LED) 전구에 불을 밝히고 고전압 플라스마도 만들 수 있다.
- 마찰대전 나노발전기의 전극 구조를 마이크로톱니(Micro-serrated) 형태로 만들고 그 전극의 방전 특성을 이용해 마찰전기의 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였고, 개발된 기술은 기존 연구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전극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5,000V 이상 고전압을 구현해냈으며, 이는 2,000V 수준에 머물렀던 유사 연구들보다 2~3배 이상 뛰어난 출력이다.
- 그 과정을 이론적으로 규명해낸 논문을 2020년 11월 에너지 분야 상위 3%에 해당하는 유명 학술지 Advanced Energy Materials(Impact Factor : 25.245)에 게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어떠한 형태의 마찰대전 나노발전기에서도 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이크로 니들 형태의 전극을 만들고 스파크 방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증폭 장치(부스트 어댑터)를 독자적으로 설계·제작하였다.
- 제작된 증폭장치는 증폭 전보다 약 25배 이상의 전압 출력과 120배 이상의 전류 상승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효과

- 피뢰침 구조 원리에서 고전압 마찰대전 발전기 개발에 성공한 본 기술은 반영구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미래기술이며, 나노발전기는 고전압 저전류라는 자체 특성이 있어서 감전으로부터 안전하고 여러 IoT 디바이스 및 축전지들의 자가 충전이 가능하다.
- 향후 상용화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운동, 마찰에너지로 어두운 골목길, 등산로의 전구를 외부의 전원이 없이 밝히는 것부터 고전압 플라스마를 활용한 공기 중 바이러스 제거, 오염된 물의 수처리, 피부 재생 분야까지 다양한 실생활 영역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험성도 낮고,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꾸준한 기술 발전이 되면 태양광 발전기와 풍력발전기를 이어 마찰대전 나노발전기 기술이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논문, 특허]

간세포암의 종양줄기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한 세포 독성에 저항성을 보이는 기전 규명 및 이를 극복할 새로운 항종양 면역 치료법 고안

우수성과 대표자
성필수



가톨릭대학교
교수

☎ pssung
@catholic.ac.kr



[좌]가톨릭 간연구소 멤버, [우]2019 한일 간염 미팅

주요내용

- 난치성 종양인 간암은 국내 5대 호발암 중의 하나로 조기에 발견될 경우 완치율이 높지만 진행된 간암에서는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생존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진행성 간암에서는 항암, 방사선 및 표적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흔해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 최근 도입된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제 치료도 단일요법으로는 반응율이 20%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각종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는 원인으로 “암 줄기세포(cancer stem cel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5% 미만의 암 줄기세포는 암 조직을 유지하는 구실을 하고 또한 치료 후 줄어든 암세포를 재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 본 연구는 간암줄기세포의 대표적인 마커인 EpCAM (epi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의 발현이 높은 세포는 자연살해세포 등의 종양살상세포에 의한 면역기전을 회피하기 위해 CEACAM1 (carcinoembryonic antigen-related cell adhesion molecule 1)의 발현이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 대표적인 종양살상세포인 자연살해세포의 활성화도는 간암 환자의 재발 및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EpCAM을 발현하는 간암줄기세포의 CEACAM1의 발현은 종양살상세포의 항종양 살상 효과를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면역 치료의 효율을 반감시키게 된다. 연구진은 간암의 생쥐 모델을 활용하여 CEACAM1의 발현을 저해시킨 결과, 종양 내 자연살해세포 및 T 세포의 활성화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증명하였다.
- 본 연구는 가톨릭간연구소 및 가톨릭의대가 보유하고 있는 간암 빅데이터 레지스트리와 간암 동결조직, 파라핀 블록 등을 이용하였으며, 세포실험과 생물정보학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공동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 그 동안 본 연구소가 보유한 간암 줄기세포에 관한 다양한 실험 경험이 본 연구의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기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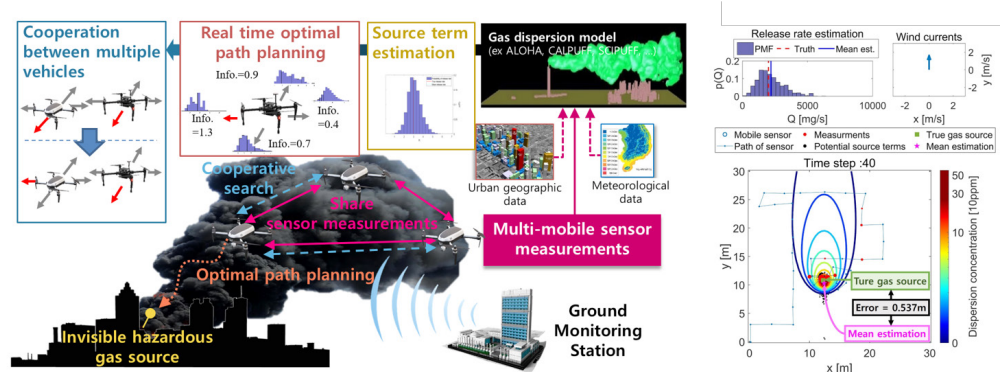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난치성 종양인 간암의 새로운 방식의 면역 복합 치료 방안의 제시를 하였다. 본 연구자는 실제로 간암을 치료하는 임상으로서 상기 발굴한 인자들을 이용한 전향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발굴 바이오마커의 유효성 검증이 가능하다. 또한 진행성 간세포암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로 간암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추후 임상진입을 통하여 국제 시장에서 면역항암분야 정밀 의료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기초연구 [논문]

다수의 자율 무인비행체를 이용한 대기 방출 유해물질 감지 기법 연구

 우수성과 대표자
오현동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h.oh
@unist.ac.kr


[다수 자율 드론을 이용한 유해물질 탐색 시스템 개념도 및 실외 드론 실험 결과]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상황 발생 시, 다수의 무인비행체와 이에 탑재된 탐지 센서를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자율적으로 오염 근원지와 방출량을 추정하고 감시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였다.
- 다양한 유해물질 방출 시나리오 적용 및 성능 향상을 위해 베이지안 추론 기반의 확률적 추정 기법을 개발하였다.
- 무인비행체의 경로는 미리 정해진 탐색 패턴이나 수동 조종 명령이 아닌 실시간으로 획득된 센서 정보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최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로 자율적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된다.
- 다수의 무인비행체에 탑재된 센서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유해물질 탐색에 요구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오염 지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상 무인비행체를 이용한 실내 실험 및 드론을 이용한 실외 방출 근원지 추정 실험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정확한 오염 근원지를 추정함을 보였다. 이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오염 사고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율환경감시 시스템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인포메이션 퓨전 (Information Fusion, IF=12.975, JCR ranking 0.5%) 3편을 포함한 다양한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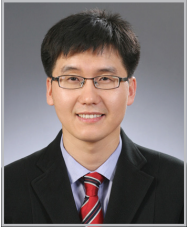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무인비행체의 자율성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유해물질 및 환경감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산업 시설이 밀집된 공단 지역이나 원전 지역에 적절한 센서를 갖춘 드론이 배치되어 자율적으로 경로를 계획하여 환경 정보를 획득하고 오염 지도를 생성하면,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대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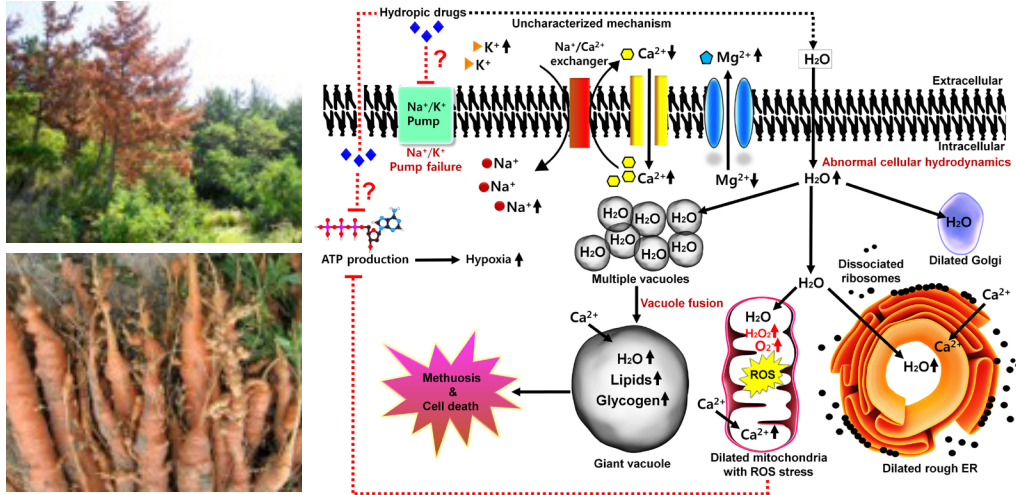
개인기초연구 [논문, 특허]

새로운 소나무재선충 및 뿌리혹선충 억제제 개발

우수성과 대표자
이진태



영남대학교
교수
jtlee
@ynu.ac.kr



[액포 생성을 통한 소나무재선충과 뿌리혹선충의 사멸]

주요내용

- 소나무재선충은 우리나라 산림에 큰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고 뿌리혹선충은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와 200조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 선충 억제용 살충제로 주로 사용되는 아바멕틴(2015년 노벨생리학 화학물)은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살충제의 사용증가에 따른 약제 저항성 및 동물독성에 따른 부작용 증가로 대체 친환경 약품 개발이 절실하다.
- 본 연구에서는 선충특이적 할로겐화인돌을 선별하여 소나무재선충과 뿌리혹선충의 사멸을 유도하였다.
- 작용기작으로 삼투압의 변화에 따른 세포팽창과 거대 액포의 생성 및 파열을 통해 선충 사멸을 유도하였다.
- 상용 선충억제제인 아바멕틴에 비해 동물독성이 현저히 낮고 식물에도 독성이 적다.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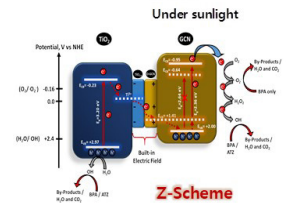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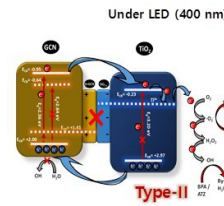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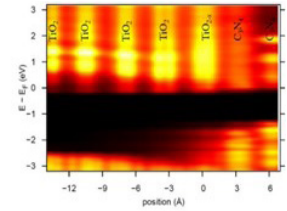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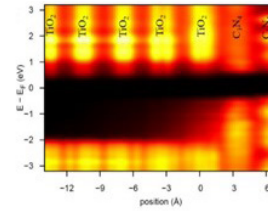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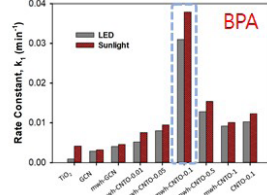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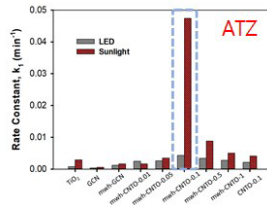
- 유해 선충 사멸을 위한 새로운 기작(거대 액포생성 및 파열)을 규명하였으며 다양한 병원성 선충(소나무재선충, 뿌리혹선충, 콩씨스트선충, 뿌리석이선충, 식물잎선충, 강변사상충, 림프사상충) 억제에 사용 가능하다.
- 저독성 선충억제제의 국내 대량 생산 및 산업화 가능성 제시, 친환경 살충제 시장 선도 및 유해 토양 선충에 의한 농산물 피해 극복 및 농가 소득 증대 가능하다.

개인기초연구 [논문]

태양광 활성 광촉매를 이용한 미량유기오염물질 오염수처리

 우수성과 대표자
장민

 - 마이크로파 열수 합성 방법을 이용한 g-C₃N₄/TiO₂의 결합 구조 유도 및 이의 결합을 통한 Z-scheme 경로 형성

 광운대학교
교수
minjang
@kw.ac.kr

 [g-C₃N₄/TiO₂의 미량유기오염물질 제거 실험 결과(좌)와 이의 예상 작동 기작 및 DFT calculation을 이용한 g-C₃N₄/TiO₂의 계면 전하 전달 과정 규명(우)]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파 열수 합성 방법을 이용하여 g-C₃N₄와 TiO₂가 결합될 때 g-C₃N₄ 표면의 산화가 이루어지고 TiO₂ 표면에 결합 구조가 생성되며, 형성된 결합 광촉매(이하 g-C₃N₄/TiO₂)는 태양광이 조사될 때 Z-scheme 경로가 생성되어 두 광촉매의 계면 사이로 전하가 전달되는 기작이 도입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진은 g-C₃N₄/TiO₂가 400 nm의 단일 파장에서는 위의 Z-scheme 기작이 아닌 2형 이종 접합(type-II heterojunction) 기작을 보임을 추론하였다. 이는 모든 파장 영역을 포함하는 태양광에서는 3.2 eV의 띠틈를 보유한 TiO₂가 활성화 될 수 있으나 400 nm의 파장에서는 그렇지 못하여 생기는 현상이었다.
- g-C₃N₄/TiO₂는 두 기작 모두에서 미량유기오염물질(bisphenol A(BPA) 및 atrazine(ATZ))을 단일 촉매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하였다. 그런데 수중에서 대개 음전하를 띄는 atrazine은 같은 음이온성을 띄는 superoxide anion에 의하여 제거가 어렵다는 점에 입각하여 파장에 따른 g-C₃N₄/TiO₂의 두 기작의 차이를 추론해볼 수 있었다. 요컨대 Z-scheme 기작에서는 TiO₂를 통하여 hydroxyl 활성종이 형성되나 type-II heterojunction에서는 g-C₃N₄를 통하여 superoxide anion이 주요하게 형성되어 오염 물질 제거 반응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작은 오염 물질 제거 실험 뿐만 아니라 전자 스핀 공명 분석 등의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광촉매의 기작은 밀범도함수 이론(density functional theory, DFT)을 통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 되었으며 상태 밀도(density of states) 계산 등을 통하여 실제 계산 결과가 예상된 기작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 결과는 우수한 성능의 광촉매의 개발과 이의 환경적 적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은 2020 년 환경 공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IF: 19.5, JCR Ranking: 1.9 %. 2021 년 기준)에 게재되었다(Kien Tiek Wong 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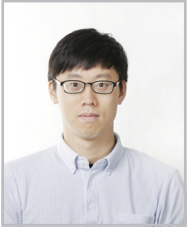
기대효과

- 최근 미량유기오염물질은 분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수중에서 다양한 종류와 농도로 발견되고 있으며 이들은 극미량으로도 환경에 장기적으로 잔류하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기술의 개발이 절실하며 광촉매 기술은 이를 위한 친환경적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광촉매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성능을 가진 매질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g-C₃N₄/TiO₂는 효과적인 미량유기오염물질 제거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광촉매의 환경 적용에 있어 좋은 바탕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DFT 계산 등을 통한 촉매 작동 기작의 통찰은 광촉매의 심도 깊은 연구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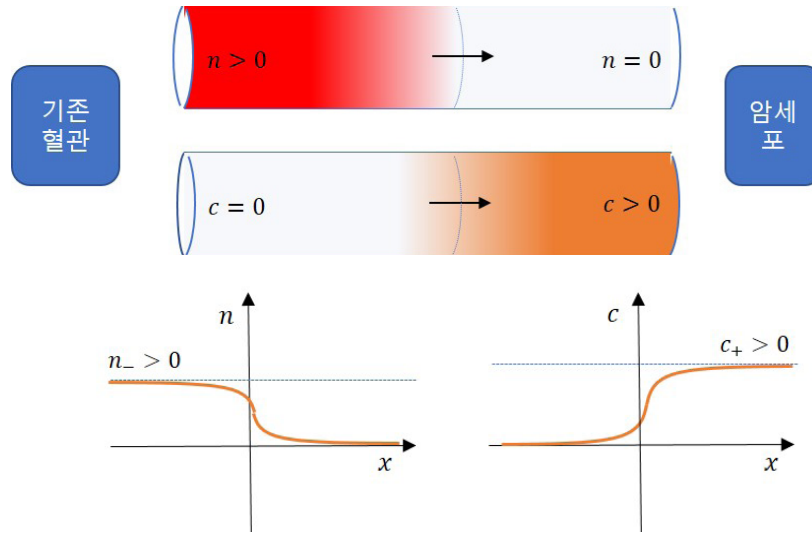
개인기초연구 [논문]

암세포를 향한 혈관형성 모델 시스템의 수송해의 안정성

우수성과 대표자
최규동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kchoi
@unist.ac.kr



[수송해의 모식도 : n은 혈관 내피의 밀도, c는 VEGF라고 부르는 단백질질을 뜻한다. 색깔이 진한 부분은 더 큰 양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요내용

- 여러 생물현상 중 암세포의 성장은 인류에게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왔다. 암세포의 최초 발생 이후 성장단계 중 필수적인 단계 중 하나는 기존의 존재하던 혈관에서 초기의 암세포가 있는 방향으로 혈관이 새로 생성되는 혈관형성(angiogenesis) 단계이다. 수리생물학에서는 흔히 Keller-Segel 방정식을 사용하여 이러한 메커니즘을 묘사해왔다. 수학적으로 이 방정식은 편미분 시스템으로 쓰여지게 되고 이 시스템의 엄밀한 수학적 이론제공 및 확장이 이번 성과의 내용이다.
- 이 방정식의 미지함수로는 혈관 내피(endothelial)의 밀도(density)함수 $n(x,t)$ 과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라고 부르는 단백질 혹은 혈관형성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의 모여 있는 정도(concentration)를 뜻하는 함수 $c(x,t)$ 가 있다. 이 방정식의 수송해(traveling wave)는 한쪽 끝의 암세포가 위치하고 반대쪽 끝에는 기존 혈관이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혈관쪽에서 암세포를 향해 혈관내피의 밀도 n 이 성장하여 돌을 연결하는 혈관이 자라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혈관이 자라나게 하는 유인 요소로 화학물질 c 를 고려한다.
- 이러한 수송해의 수학적 존재성은 기존에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의 안정성은 오직 1차원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증명이 되어있었고 2차원 이상의 결과는 없었다. 이 성과에서 우리는 2차원 때 위에서의 안정성을 얻었고 1차원에서는 기존의 가정 중 섭동(perturbation)에게 필수적으로 가정되어졌던 인공적인 조건을 제거할 수 있었다.

기대효과

- 본 성과는 수학 이론 관련하여 편미분방정식, 수리적 해석분야의 지식 증진에 기여하고 융합분야인 수리생물학의 혈관형성 모델시스템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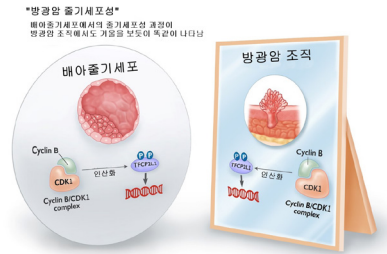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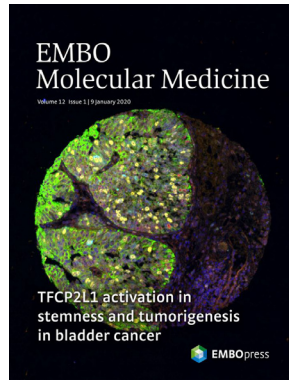
개인기초연구 [논문]

줄기세포성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TFCEP2L1 전사인자 발굴 및 생물학적·임상적 유의성 규명

우수성과 대표자
허진범



울산대학교
교수
hjb0328
@naver.com



[좌]EMBO Molecular Medicine 표지 논문 선정, [우]방광암의 줄기세포성]

주요내용

- ‘암 줄기세포’란 증양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줄기세포들을 말하며, 이러한 암 줄기세포의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을 ‘줄기세포성’이라고 한다. 그동안 방광암 줄기세포가 방광암의 높은 재발률과 항암치료 내성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줄기세포성이 형성되는 정확한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줄기세포성 기전이 밝혀 짐으로써 표적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높여 난치성 방광암 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줄기세포 인자인 OCT4를 발현하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의 전사체 분석을 통하여, 두 세포의 줄기세포성 조절에 TFCEP2L1 전사 인자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세포 주기 단백질인 CDK1은 TFCEP2L1 단백질을 직접 인산화하여 줄기세포성과 세포 주기 관련 유전자 발현을 강화하고 세포 분화 유전자들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방광암 환자 400명의 방광암 조직에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하여 CDK1과 TFCEP2L1의 과발현 및 TFCEP2L1 단백질 인산화가 다양한 임상병리학적 예후인자와 관련성을 분석하였을 때, 방광암의 악성도(tumor grade), 근육 침윤성 (muscle invasion), 림프절 전이(lymph node metastasis), 타 장기 전이(distal metastasis)와 환자 사망률(cancer specific survival)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들의 발현은 독립적인 불량한 예후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방광암에서 CDK1-TFCEP2L1의 중요성은 The Cancer Genome Atlas (TCGA, NIH)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외국 연구기관의 환자군에서도 동일함을 확인하였으며, 배아줄기세포와 방광암 세포의 세포 배양 모델과 방광암 동물 모델을 통하여 이에 대한 상세한 분자학적 기전들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아줄기세포의 전분화능 (pluripotency)에 관여하는 전사 인자 조절 프로그램들이 성체 조직 세포에서 이상이 생길 경우 암과 같은 질환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임상적 중요성을 방광암 연구를 통하여 입증하였다.

기대효과

- 방광암의 높은 재발률과 항암 치료 후 내성을 설명하는 가장 주목되는 이론으로 방광암 줄기세포의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를 통하여 방광암의 높은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줄기세포성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방광암 치료법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방광암의 병리기전에 대한 이해를 높인 만큼 새로운 표적 치료기술 개발과 함께, 환자 맞춤 의학 실현을 위하여 방광암 치료법의 반응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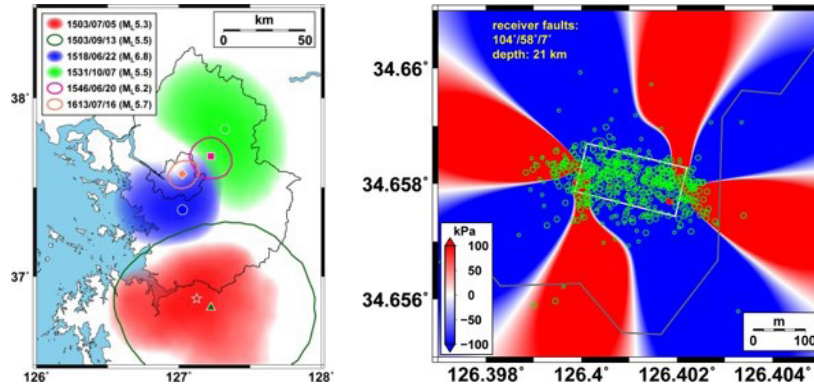
개인기초연구 [논문]

매질내 응력 변화 원인 및 효과 분석

우수성과 대표자
홍태경



연세대학교
교수
tkhong
@yonsei.ac.kr



[좌)조선시대 수도권지역 6대 지진 위치와 규모, 우)2020년 4월 해남지역 지각하부 미소지진 분포와 본 지진 응력 분포]

주요내용

- 매질내에 유도되는 응력변화 요소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였다. 응력변화를 일으키는 지진, 태풍, 인간 활동에 따른 매질 반응을 이해하고, 자연재해 저감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
- 확률론적 복합 역산 방법을 기반으로 한 역사지진 분석법을 통해 조선시대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확률론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지진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반도와 수도권은 과거에도 중대형 지진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향후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였다.
- 한반도 남서부 하부 지각내의 군발 지진 연구는 판내 환경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특이한 성격을 보이며, 응력 변화와 지진과의 상관성을 보이는 중요한 연구결과 제시되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효과가 지각 하부의 지진 유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한반도 동해안 일대의 지진 활동과 지진 위험도 분석 연구를 통해 동해 지역에서의 지진 잠재성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이들 지진에 의한 지진동의 크기를 제시하여, 지진 재해 추정 분석에 이바지했다.
- 태풍의 맥동 진원 분석과 인간 활동과 지진파 배경 잡음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통해 태풍 등 자연 현상에 의해 유발되는 배경잡음과 응력유도 효과를 확인하였고, 지표 배경 지진동 크기를 제시하였다.
- 본 연구를 통해 지진 발생과 화산 분화에 미치는 응력 효과를 확인하였다. 각 연구결과는 해당 분야 권위 학술지에 게재되어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증명하였다.

기대효과

- 본 연구 성과는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 인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다.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지진 저감을 위한 주요 시설물 내진 설계 요구 성능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다.
- 한반도 및 인근 지역의 지진 재해 특성을 확인하였고, 지진과 화산 활동 잠재성 평가 기반을 마련하였다.
- 본 연구 과제는 지진 재해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연구성과는 한반도 지진재해 저감 등 사회 공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학세계화랩 [저서]

동아시아 민주주의에서 바라본 이주민 통합 (Immigrant Incorporation in East Asian Democracies)

우수성과 대표자
Erin Aeran Chung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
echung
@jhu.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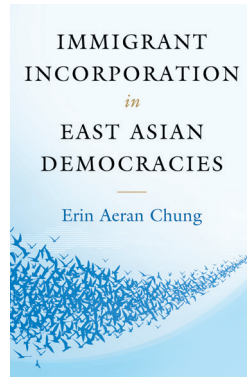


TABLE 3.4 Civic legacies in East Asia

Ideas	Strategies	Networks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Human rights Democracy Justice Dignity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ntralized mass demonstrations & protests Litigation Petitions Public awareness campaigns Lobbying Candlelight vig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bor movement Women's movement Student movement Religious organizations Culture organizations, NGOs, & NPOs Human rights lawyers and legal associations
Jap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Human rights Local citizenship Foreign resident citizenship (<i>jūdojinchi</i>) Tolerance Coexist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centralized grassroots movements Litigation Petitions Public awareness campaigns Lobbying Cultivation of foreign resident lea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bor unions Women's organizations Religious organizations Culture organizations, NGOs, & NPOs Human rights lawyers and legal associations Grassroots activists from previous foreign resident rights movements
Taiw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Human rights Democracy Indigenization / localization Multiculturalism Equ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Rallies, public performances, & protests Litigation Petitions Public awareness campaigns Lobbying Candlelight vig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bor unions (limited) Women's organizations (limited) Religious organizations Culture organizations, NGOs, & NPOs (limited) Human rights lawyers and legal associations Ethnicity-based coalitions

Source: Author's own compilation.

[저서] Immigrant Incorporation in East Asian Democracies [일본, 한국, 대만의 시민적 유산]

주요내용

- 본 책 “동아시아 민주주의에서 바라본 이주민 통합”(Immigrant Incorporation in East Asian Democrac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이민정책과 국적제도, 이주민 인구와 이민 역사 비교를 통해 과거 민주주의 투쟁이 낳은 시민적 유산(civic legacies)이 현재의 이주민 권리와 인식을 위한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한다.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한국, 대만은 2000년대 초반까지 엄격한 이민 정책과 이주민 배제를 실행했다.
- 대만은 이러한 정책을 고수했던 반면, 일본은 풀뿌리 차원에서 이주민 사업을 확장시키는 점진적인 행보를 밟았고, 한국은 전면적인 이주 정책 개혁을 시행했다. 본 연구는 유사한 형태의 정책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이주민 통합 패턴을 만들어내는 지에 대해 살핀다.
- 이 책은 이주민 권리에 목소리를 부여하고, 이주민 활동가를 모으며, 이민 정책과 공론장을 형성하는 이주민 당사자를 포함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한다. 저자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이주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맞서기 위해 역사적으로 열위에 놓인 소수집단을 포용하고자 적용되었던 기존의 신념, 네트워크와 전략들, 또는 저자가 지칭하는 시민적 유산을 끌어 오고 있음을 논증한다. 이주민, 시민사회 활동가와 정부 관료에 대한 150회 이상의 심층 인터뷰, 20개 이상의 이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포커스 그룹 연구와 7년에 걸친 일본, 한국, 대만 아카이브 연구에 기반하여 본 책은 정치 엘리트, 시민사회, 그리고 이주민 당사자들의 시점으로부터 정치적 통합의 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기대효과

- 이주민 통합에 대한 기존의 가정을 밝히고, 이를 유럽 중심의 프레임으로부터 탈피시킴으로써 이주 연구의 발전을 도모한다.
- 각 국가들의 유사한 이민정책에 대한 지역간 비교를 통해 이주민의 정치적 통합과 참여를 도모하고 저해하는 중재 변수들 (intermediary variables) 을 규명한다.
- 이주민 행위성 (immigrant agency) 을 분석의 중심에 두어 이주민 당사자들에게는 이주민 통합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한다.



한국학분야토대연구지원 [DB]

일제침략기 한국 관련 사진그림엽서(繪葉書)의 수집·분석·해제 및 DB 구축

우수성과 대표자
신동규



동아대학교
교수
eastasia
@dau.ac.kr



[좌]2018년 국제학술대회 겸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 전시회(2108년 광주아시아문화원), 우)일제침략기 한국 관련 사진그림엽서 DB 홈페이지]

주요내용

- 한국 관련 사진그림엽서는 당대의 시대상을 대변해주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음에도 그간 DB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술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자료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제침략기(1897-1945)의 사진그림엽서를 분석·고찰하고, 모든 엽서에 대한 해제를 붙여 DB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근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왜곡된 선전과 홍보가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일본인과 조선인들에게 굴절된 한국관을 이식시켜 나갔음을 밝힐 수 있었고, 나아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강제된 한국병합, 그리고 식민지 지배의 합리화에 대한 제국주의 프로파간다의 양상을 고찰할 수 있는 토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 최종 결과물은 사진그림엽서 6,943건에 대한 메타데이터 자료 구축과 이미지 13,886건인데, 근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사상·인류·민속·관광 등 다양한 학술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귀중 자료들이다. 특히, 엽서의 이미지는 600dpi의 고해상도 스캔을 통해서 정밀한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여기에 오랜 세월이 흘러 탈색, 또는 번색된 엽서들은 이미지 보정 작업과 함께 선명도를 높여 원본에 가깝도록 수정함으로써 자료의 활용 가치성을 높였다. 엽서에 인쇄된 외국어(일본·영문)의 설명문은 모두 번역하였으며, 제목과 부제목, 그리고 대·중·소 분류를 통해 연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현재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http://waks.aks.ac.kr>)에서 공개하고 있다.

기대효과

- 본 DB 구축의 활용과 기대효과는 첫째, 자료적 희귀성과 고가 수집품으로서의 가치만이 중시되던 사진그림엽서를 학술연구의 토대 자료로서 DB로 구축하여 공개함으로써 학술적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둘째, 본 DB는 근대 한국의 역사·사회상에 대한 귀중한 사진 자료들을 디지털화 해서 영구 보존함으로써 이를 통해 과거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다. 셋째, 일제의 침략적 통치정책과 관련된 이미지 자료를 연구자·일반인들과 공유한다는 측면과 함께 교육의 현장에서도 시각자료로 이용할 수 있어 학술적·사회적인 기여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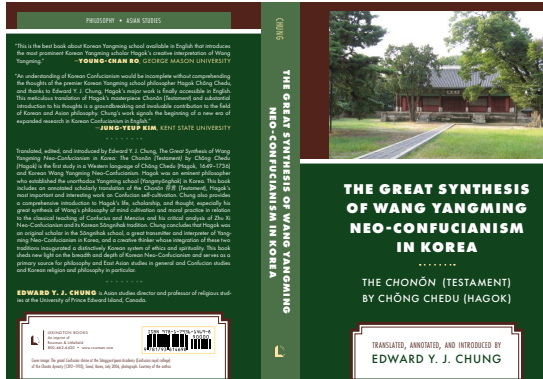
한국고전100선 영문번역사업 [저서(역서)]

Edward Y. J. Chung, The Great Synthesis of Wang Yangming Neo-Confucianism in Korea : The Chonŏn (Testament) by Chŏng Chedu (Hagok).

우수성과 대표자
Chung Edward



University of PEI
교수
chung
@upei.ca



[좌]The official book's cover, [우]Two sample pages of the original text 『존언 (存言)』

주요내용

- This is a major book on Korean philosophy and religion. It is the pioneering study in a Western language of Chŏng Chedu 鄭齊斗 (Hagok 霞谷, 1649–1736) and Korean Yangming Neo-Confucianism. Hagok was an eminent Confucian thinker who established the unorthodox Yangming school (Yangmyŏnghak 陽明學) in Korea. The book includes a scholarly translation of the Chonŏn 存言, Hagok's most significant work on Korean Yangming thought. It translates, annotates, and discusses forty-one key essays from all three parts of the Chonŏn that represent the heart of Hagok's metaphysics, ethics, and spirituality. My presentation also provides a comprehensive and in-depth introduction to Hagok's life, scholarship, and thought, which includes a thought-provoking discussion of Hagok's great synthesis of Wang's philosophy of self-cultivation and moral practice in relation to the classical teaching of Confucius and Mencius and Hagok's critical analysis of Zhu Xi 朱熹 Neo-Confucianism. I conclude that Hagok was an original scholar in the Sŏngnihak (Zhu Xi) school, a great interpreter of Yangming Neo-Confucianism in Korea, and a creative thinker whose integration of these two traditions inaugurated a distinctively Korean system of thought. This also book offers an enormous number of original quotations, annotated notes, interpretive comments, a full glossary, and an updated, extensive bibliography.

Key words: 하곡, 정제두, 『존언』, 한국유교, 본심, 사욕, 선악, 성리학, 성의, 성학 聖學, 수신, 심성정, 심지본체, 심학, 양명학, 양지, 영성, 윤리, 이기 理氣, 이퇴계, 왕양명, 주자, 주자학, 지행합일, 천리, 철학.

기대효과

- 하곡 정제두라는 인물의 삶과 철학을 분석한 역작이다. 국내의 기존 연구성과는 물론, 해외 학계의 연구성과도 반영했다. 무엇보다도 조선시대 유교 양명학 관련 자료의 영어권 번역 성과로서 한국사상·동양철학을 연구하는 해외 학자와 학생들에게 귀중한 1차 자료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학사전편찬사업 [DB]

근대 한국의 '세계지명' 정보 사전

(Information Dictionary of 'Foreign Place Names' in Modern Korea, 1876~1945)

우수성과 대표자
송찬섭



방송통신대
교수
songcs
@knou.ac.kr

구분	현재지명	근대 텍스트 속 표기형태 예시
국가	그리스 (Greece)	希臘(희랍), 哥利士(가리사), 卡利斯(가리사), 搖而裏司(요이리사), 斯拉喬斯(사랍교사), ㄸ리이기, ㄸ레시아, ㄸ리샤, ㄸ뤼쑈, ㄸ리쑈, 스테쑈, ㄸ리시아, ㄸ리시야, ㄸ리쑈, 글익, ㄸ리샤, ㄸ레즈 등
도시	바르샤바 (Warszawa)	瓦沙(와사), 瓦爾羅(와이소), 和踈(와소), 臥蘇府(와소부), 悉沙브, 와르샤, 와르사와, 와루소, 와리샤, 와로쇄와, 와루샤와, 와르쑈우, 알소, 왓사오, 월소-府, 와사와, 와쑈 등
섬	사이프러스 (Cyprus)/ 키프로스 (Kypros)	摺勒未尼島(개늑말니도), 居伯羅島(거백라도), 居比路(거비로), 紀連(기포), 細布拉斯(세포랍사), 塞卜洛斯(새복락사), 直布羅陀(직포라타), 舍剖樓斯(사부루사), 西都拉司(서도랍사), 西卑刺士海島(서비자사해도), 雪補螺螄(설보나사), 시보라스, 싸이푸루스, 사이푸루스, 사이필우스, 키프러스, 씨프루스 등

[근대 텍스트 속 세계지명 표기 형태 사례]

주요내용

- 본 연구는 근대(1876~1945년) 한국에서 유통된 '세계지명(자연지명, 행정지명, 인문지명)'의 공식적·통시적 변화상과 그 수용경로 및 변천에 관한 기초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한국학 연구의 기반이 될 '온라인 사전' 형태로 편찬한 것이다.
- 한·중·일을 제외한 5대양 6대주의 모든 지명에 대해, ① 근대 한국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세계지명을 추출하여 DB로 구축하고, ② 세계지명의 수용경로와 성격 및 변천을 알 수 있는 같은 시기 중국·일본 등의 세계지명 정보들을 참조하여 추출된 어휘를 교차 검토한 후 DB화하며, ③ 연구과정에서 조사 수집된 전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계통화하였다. 근대 신문·잡지, 교과서, 역사서, 학술서, 여행기, 문학작품, 지도·기타 등의 텍스트군에서 총 208종의 텍스트를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표제지명 추출과 입력, 기초정보 및 용례의 DB화, 현대어 윤문과 검수 등 단계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22,264건(중복어휘 포함)의 표제지명에 관한 정보를 DB로 구축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역사학, 지리학, 국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의 학제 간 분업과 협업을 통해 수행되기에 가능했다.
- 이 과제는 본 연구단이 과거 <한국 근대 신어의 성립과 변천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구축(토대연구 지원사업, 2012.09.01.~2015.08.31.)>에서 총 68,260건의 근대 신조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어서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지명의 조사에 이어서 본 연구단은 현재 <근대 한국의 '세계인명' 표기·용례 사전(한국학사전편찬사업, 2019.06.01.~2022.05.31.)>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잘 마무리된다면 명실공히 한국 근대 신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전체가 완료될 것이라 자부한다.

기대효과

- 사전 편찬은 국가의 지적·문화적 능력이 집약적으로 표출되는 사업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한국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근대 세계지명 집대성 작업으로서 관련 분과학문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근대 텍스트 분석의 난해성 등을 해결함으로써 인문학뿐만 아니라 이 시기 텍스트 연구가 필요한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연구에도 두루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차별화된 DB 설계를 바탕으로 전문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출되었다.
- 이는 근대 세계지명에 관한 여러 양상의 분석 가능성과 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향후 이를 매개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창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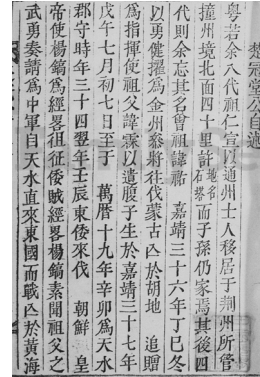
한국학세계화랩사업 [저서]

조선의 외국인과 후손: 향화인과 황조인

우수성과 대표자
Adam Clarence Bohnet



King's College
교수
◎ abohnet
@uwo.ca



[황조인 강세작의 자술서 (<https://www.familysearch.org>)]

주요내용

- 본 단행본은 조선시대에 귀화한 외국인들과 그들의 후손을 조선 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 통치 했는지를 논하고 있다. 다양한 사료에 근거하여, 특히 임진왜란 이후의 들어온 외국인 - 예컨데, 임진왜란 중 투항한 명출신 및 일본 출신 도망병 - 그리고 명청교체기 만주국을 피하여 조선으로 피난해 온 여진족과 중국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 이 단행본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1750년을 전후로 조선 조정에 귀화한 외국인들의 통치 방법에 대한 변화이다. 18세기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향화인(向化人)”이란 신분으로 통치되었다. 제도적으로, “향화인”은 조선 조정으로부터 세금과 부역을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았지만, 동시에 조선 왕의 교화를 받는 변방인으로 규제되었다. 하지만, 1750년대 이후 영정조하에 명나라 출신 조상을 둔 향화인의 경우 다른 향화인과 구분된 특수 신분인 화인(華人) 내지 황조인(皇朝人)으로 재개념화되었다. 황조인은 향화인보다 우월한 혜택을 받았으며, 대보단에서 임금과 함께 의례에 참석할 수 있었고 무과를 통해 낮은 벼슬도 가능해졌다.
- 이 책은 외국인에 대한 조선의 통치변화가 생긴 1750년 전환기에 주목하여, 같은 시기 외국인과 소수민에 대해 유사한 통치전략을 취한 유럽과 청나라 및 동남아시아의 사례들을 논한다. 이를 통해, 조선 중화주의의 일부 담론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의 중화주의를 세계사적 문맥 안에서 재해석 하고 있다.

기대효과

- 한국의 일반 대중과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아시아 연구자들은 조선을 흔히 “폐쇄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사회로 이해하곤 한다. 이 책은 그러한 관점을 문제시하며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한국학계에서 통용되는 “조선 중화 주의” 담론을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 이 단행본은 Andrew H. Mellon Foundation의 지원하에 무료로 PDF 형태로 공유가 가능하며, 그로 인해 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

연구와 성과, 드러내다

2020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 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 발행처 | 인문사회연구본부 인문사회학술지원팀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042-869-6723 www.nrf.re.kr